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706-01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문화·여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차 례

---

### 제1장 문화·여가 부문 현황

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 개요 ..... 1
2. 정책목표 달성도 ..... 3
3. 삶의 질 개선 현황 ..... 5

### 제2장 문화·여가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 7
2.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 16
3.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 -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 23
4.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을 통한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증진 - ..... 47

### 제3장 문화·여가 부문 우수사례

1. 화순군생활문화센터 동아리 활성화 방안 -  
화순군생활문화센터 동아리운영 방안 사례를 중심으로- ..... 63
2.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마을 풍장굿 활성화 사례 ..... 71

### 제4장 문화·여가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83
2. 정책 제언 ..... 87

참고문헌 ..... 93

## 표 차례

---

### 제1장

<표 1-1> 문화·여가 부문 연차별 투융자 금액 .....	2
<표 1-2>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와 실적 ...	3
<표 1-3> 문화·여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도 .....	4
<표 1-4>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	4
<표 1-5>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	4
<표 1-6>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부문 주관적 만족도 .....	5
<표 1-7> 농촌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만족도 .....	6

### 제2장

<표 2-1> 전체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	8
<표 2-2>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12
<표 2-3>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	12
<표 2-4>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	13
<표 2-5>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	13
<표 2-6> 문화예술행사 향유 걸림돌 .....	14
<표 2-7> 문화·여가 부문의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	24
<표 2-8>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기조 방향 .....	24
<표 2-9> 생활문화센터 조성(5-2-1) 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	26
<표 2-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5-2-2) 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	27
<표 2-11>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 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	28
<표 2-12>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5-2) 정책군의 사업별 목적, 내용, 목표(총괄) .....	28

<표 2-13>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	31
<표 2-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	32
<표 2-15>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	32
<표 2-16>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지원 예산 및 규모 .....	33
<표 2-17>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컨설팅단 개요 .....	34
<표 2-18>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컨설팅단 개요 .....	35
<표 2-19>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 .....	36
<표 2-2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5-2-2)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 .....	36
<표 2-21>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 .....	37
<표 2-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5-2-2) 사업의 사업효과성 분석 결과 .....	39
<표 2-23>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중 문화·여가 부문 정책 과제 .....	40
<표 2-24>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 및 9대 의제 .....	40
<표 2-25> 생활문화센터 전체 운영인력 현황(평균인원 수)(2017년 기준) .....	42
<표 2-26>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여부(2017년 기준) .....	42
<표 2-27> 문화비전2030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의제 및 세부사업 현황 .....	43
<표 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의 예술치유 관련 사업 현황 .....	44
<표 2-29>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	53
<표 2-30>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	53
<표 2-31>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	55
<표 2-32>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	55
<표 2-33> 예술꽃 씨앗학교 중 전통문화 분야 교육 진행 학교 .....	59
<표 2-34> 전통·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요 .....	60

**제3장**

<표 3-1> 생활문화 그뤼잇! 동호회 프로그램 .....	65
<표 3-2> 향산마을 풍장소리(1991, MBC 녹음) .....	73

**제4장**

<표 4-1> 문화예술행사 향유 걸림돌 .....	83
-----------------------------	----



## 그림 차례

---

### 제1장

- <그림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 2

### 제2장

- <그림 2-1>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21  
 <그림 2-2>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권역 층첩 지역 ..... 23  
 <그림 2-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읍·면 지역 선정 현황 ..... 34  
 <그림 2-4> 생활문화센터 현황 ..... 38  
 <그림 2-5> 전라북도민의 국외여행 경험률 ..... 45  
 <그림 2-6> 전라북도 노인의 여행 경로 및 여행 시 불편한 점 ..... 46  
 <그림 2-7> 전라북도 여행 관련 사업 ..... 46

### 제3장

- <그림 3-1> 동호회 활동 사진 ..... 66  
 <그림 3-2> 프로그램 구성 ..... 68  
 <그림 3-3> 지역 문화 콘텐츠 가치 확산 효과 ..... 69  
 <그림 3-4> 향후 사업의 활용도 ..... 70  
 <그림 3-5> 향산마을 농악 교육(2014.11) ..... 76  
 <그림 3-6> 2013년 고창농악보존회의 기획공연 풍무(風舞) 중 풍장굿 장면 .. 77  
 <그림 3-7> 향산마을 풍장굿 발표회(2015.8) ..... 78  
 <그림 3-8> 인문학 콘서트 홍보물 ..... 78  
 <그림 3-9> 향산마을 어르신들과 고창농악 토크아보기 전수생들(2018.8) .. 79  
 <그림 3-10> 풍장굿을 마친 후 향산마을 사람들과 전수생들(2018.8) ..... 80



#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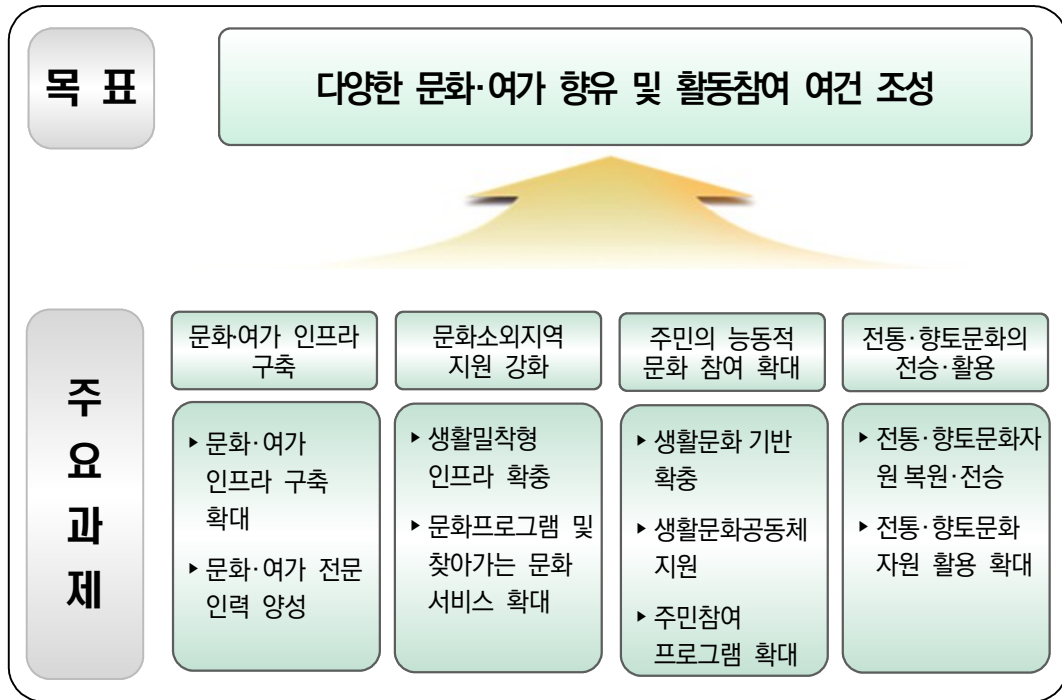
---

## 문화·여가 부문 현황

### 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 개요

- 다양한 문화·여가 향유 및 활동참여 여건 조성을 목표로 4개 정책군에 대한 주요과제 추진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확대, 문화·여가 전문 인력 양성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 문화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확대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생활문화 기반 확충,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전통·향토문화자원 복원·전승, 전통·향토문화자원 활용 확대

〈그림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목표와 주요 과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 5년간 문화·여가 부문의 투융자액은 총 17,803억 원으로 이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7개 부문 총 투융자액의 약 3.8%임.

- 문화·여가 부문의 연평균 투융자액은 3,560.6억 원으로 이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마지막 년도인 2014년의 투융자액 1,529억 원에 비해 약 2.3배 증가

〈표 1-1〉 문화·여가 부문 연차별 투융자 금액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5~'19)
투융자 금액 (억 원)	1,529	3,257	3,437	3,675	3,827	3,607	17,803

## 2. 정책목표 달성도

- 문화·여가 부문은 <표 1-2>와 같이 총 5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매년 정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문화예술 관람율
- 대체로 매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은 2019년까지 120개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 누적 수는 27개로 2019년까지의 누적 목표 120개의 22.5%에 불과함.
  -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과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는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반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추진 실적이 목표를 조금 하회하고 있음.

<표 1-2>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의 성과지표 달성 목표와 실적

평가지표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문화·여가 부문					
	제2차 2014년 (목표/실적)	2015년 (목표/실적)	2016년 (목표/실적)	2017년 (목표/실적)	2018년 (목표)	2019년 (목표)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소)	16 / 26	48 / 47	70 / 67	92 / 81	95	138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개소)	- / 2	13 / 13	23 / 29	32 / 32	25	50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개소: 누계)	13 (실적)	13 (실적)	13 (실적)	11 (실적)	미확인	120 (누적목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수(개)	- / 1,574	1,800/ 2,081	2,400/ 2,657	2,750/ 2,832	2,800	3,000
문화예술 관람율(%)	71.3 (실적)	- (2년주기)	78.3 (실적)	- (2년주기)	미확인	73

- 국가 최소기준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상의 정책목표는 2017년 기준 91.3% 달성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제2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의 마지막 년도인 2014년에 비해 목표 달성도가 다소 감소하였음.

-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경우 해당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전북의 목표 달성도가 2017년 69.2%로 가장 낮음.

\* 문화·여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표 1-3〉 문화·여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2014	2017
92.0	91.3	93.3	8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4.6	69.2	90.5	95.2	88.9	87.0	95.7	100.0	50.0	100.0
	▽		▽		▲(=)		▲(=)		▲(=)		▽		▲		▽		▲		▲

○ 농촌주민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여가 부문 4개 정책군 중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1순위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정책군이, 2순위로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임.

〈표 1-4〉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전통 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전체
1순위	223(34.8%)	191(29.8%)	146(22.8%)	80(12.5%)	640(100%)
2순위	109(17.4%)	144(23.0%)	196(31.3%)	178(28.4%)	627(100%)

○ 반면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군에 대해서는 1순위로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정책군이, 그리고 2순위로 ‘전통·향토문화의 전승·활용’ 정책군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였음.

〈표 1-5〉 문화·여가 정책 과제 중 성과가 가장 우수한 정책

	인프라 구축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전통 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전체
1순위	247(41.2%)	123(20.5%)	127(21.2%)	103(17.2%)	600(100%)
2순위	68(11.8%)	149(26.0%)	160(27.9%)	197(34.3%)	574(100%)

- 동일 설문조사(2018년) 결과에 따르면 전통문화 계승, 인프라 시설 구축,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및 소외지역 지원,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참여 확대와 같은 의견 순으로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음.

### 3. 삶의 질 개선 현황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5.2점(10점 척도)으로 가장 낮음.
  - 2017년 농촌 주민 1,9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안전부문이 6.5점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정주생활기반(6.2), 보건·복지(5.8), 교육(5.8), 환경·경관(5.8), 경제활동·일자리(5.2)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

〈표 1-6〉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부문 주관적 만족도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만족도(10점 만점)	3.1	4.7	4.6	5.1

- 도시에 비해 농촌 주민들의 문화·여가 부문 삶의 질 만족도는 비교적 크게 낮음.
  -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 6.7 / 농촌 5.2
  -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 6.6 / 농촌 5.0
  -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도시 6.3 / 농촌 5.3

○ 앞서 제시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농촌주민들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세부 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 평가 지표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모두 40점대 및 50점대에 그침.

〈표 1-7〉 농촌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만족도

문항	7점 척도	100점 환산
문화·여가 생활에 만족함	4.1	58.6
문화·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	4.1	58.6
문화·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있음	3.4	48.6
생활문화공동체(동아리, 동호회)에 적극 참여함	3.9	55.7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잘 이루어짐	3.4	48.6
필요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기 쉬움	3.3	47.1
세시풍속이나 일상의례가 잘 전승됨	3.4	48.6
전통 및 향토문화를 즐길 기회가 많음	3.1	44.3
농촌에서 문화·여가 여건이 좋아짐	3.6	51.4



## 제 2 장

---

### 문화·여가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 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 1.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개요

###### 1.1.1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시설 인프라가 열악함. 이에 따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함.
  - 군 지역은 다른 도시 규모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 여건이 불리하고, 문화 시설의 규모가 작음(박태선 등 2015).
  - 전국의 전체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총 수는 2,520개이며 그 중 1,184개는 도시에, 743개는 도농복합시에, 593개는 군에 위치함. 단위면적 100km<sup>2</sup>당 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17.8개로 농어촌 지역인 군(1.1개)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박주영·신학승 2015).

〈표 2-1〉 전체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문화기반시설	
	개수	면적 100km <sup>2</sup> 내 개수
도시	1,184	17.8
도농복합시	743	1.9
군	593	1.1
전체합계	2,520	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출처: 박주영(2015)

- 농어촌은 문화·여가 인프라 부족과 교통 불편 등으로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바,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측면에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과제는 제1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왔음.
  - 제1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 문화·여가 부문은 별도로 없었으나, 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② 문화체육센터 건립, ③ 생활체육시설 건립, ④ 유희 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⑤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을 포함함. 문화·여가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문화향유 인프라 구축 사업임.
  - 제2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생활친화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② 지방테마과학관 건립 지원, ③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④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⑤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⑥ 지역문화 컨설팅기반(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업을 포함함.
  - 제2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농어촌 작은도서관 등 이른바 ‘농어촌형’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을 포함함.

## 1.1.2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제3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②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③ 농어촌 작은영화관 조성, ④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⑤ 지역 문화 지수, ⑥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⑦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⑧ 문화 이모작, ⑨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⑩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을 추진함.
  - 크게 인프라 구축과 인적 기반에 관련한 사업으로 나뉨.
- 시설 건립과 관련한 사업으로 문화·여가 인프라 가운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체육공간을 조성함.
  -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교육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정보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건립함.
  - 농어촌 작은도서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의미함.
  - 농어촌 작은영화관은 극장이 없는 지역에 건립하는 소규모 상설 영화관임.
  -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은 운동장, 체육관, 기존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 시설 등 각종 경기 대회 개최 기반 및 생활체육 활동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임.
- 지역 문화·여가와 관련한 인적기반 사업으로서 지역 문화 지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문화 이모작,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을 추진함.
  - 지역문화지수는 지역문화 발전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개발한 지수로서 총 27개 지표로 구성함.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7개 광역도 단위의 문화재단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시군구 단위로 배치·운영하고, 17개 광역 시도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함.
- 문화이모작은 4개 권역별(강원/충청/경상/전라) 농산어촌 마을 리더, 주민,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함.
-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구축은 지역의 문화정책 현안에 대한 과제를 지역 문화 주체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농산어촌 등 문화예술교육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에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을 지원함.

## 1.2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추진 실태 평가

### 1.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문화·여가 인프라와 관련 인력에 대한 정책사업을 포함함. 하지만 일부 사업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지역문화지수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문화·여가 열위 수준을 파악하고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2년 마다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중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움.
- 농어촌 특성에 맞는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이 확대됨.
  - 작은 도서관사업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함. 사업대상을 생활밀착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 작은 영화관사업은 2014년부터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됨.

- 다만,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국민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포괄하고 있어 농어촌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사업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특성을 이해하고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할 수 있는 지역문화인력(활동가) 확충과 교육이 제3차 삶의질 계획부터 정책군에 포함됨.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특화한 형태는 아님.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 하지만 해당 사업내용은 농어촌에 특화한 형태가 아님.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울산, 전북, 충북 등 권역단위 문화재단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또한 전문기관 지정 개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양성 인력이 농어촌 지역 문화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는 2017년 1,200명 배치됨. 농어촌 지역단위 생활체육 현장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하고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체육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함.
  - 지역문화 컨설팅 기반 사업의 경우 지역의 문화정책 현안에 대하여 지역 문화 주체가 협력하여 컨설팅을 실시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있으나 9개 시도에서 15개 과제가 추진(2017년 실적)되는 등 농어촌에 특화한 사업내용은 아님.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사업은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농어촌에 한정, 특화한 형태의 사업은 아님.

## 1.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세부 사업별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정책 집행 실적을 살펴 봄.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은 연도별 건립 지원 개소수를 목표치로 하여 정책을 집행함.
  - 당초 목표치에 맞추어, 혹은 이를 상회하여 정책 집행이 이루어짐.
  - 다만 매년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원 경향(확대 혹은 축소)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2-2〉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수(정량)	1 (정량)	목표	10	15	9	7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실적	10	15	12		
		달성도	100	100	133		
측정산식 (측정방법)	① 연도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수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확정되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수						

〈표 2-3〉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①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수(정량)	1 (정량)	목표	10	8	6	5	교부결정서 사업계획서
		실적	12	13	6		
		달성도	120	163	100		
측정산식 (측정방법)	① 연도별 농어촌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수						
목표치 산출근거							

〈표 2-4〉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작은 영화관 건립 신규 지원 개소수	1 (정량)	목표	신규	14	8	8	자체 집계
		실적		14	8		
		달성도		100.0	100.0		
측정산식 (측정방법)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목표치 산출근거	지자체의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수요조사 후 사업 목표치로 설정						

〈표 2-5〉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체육시설 지원개소수	1 (정량)	목표	104	108	99	92	체육진흥시설 (지특사업) 예산내역
		실적	50	84	100		
		달성도	48.1	77.8	101		
측정산식 (측정방법)	지특사업 지원 개소수						
목표치 산출근거	시도포괄보조사업 예산 지원내역						

## 1.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첫째,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음.
  - 2014년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가 102개에 달함.
  - 2018년 작은영화관 28개소 운영 중, 31개소 추진 중 / 극장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17년 8개소, 총 51개소)
  - 농어촌형 작은도서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1개소 조성을 지원함.
  - \*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6,058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 이 중 2,647개관(43.7%)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경기 1,438개관(23.7%), 서울 962개관(15.9%), 인천 247개관(4.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표 2-6〉 문화예술행사 향유 걸림돌

		비용 과다 소요	시간 부족	관심유발 프로그램 부재	교통 불편	가까운 곳 시설 부재	편의시설 불편	관람 동반자 부재	기타
대도시	'14	39.5	19.4	11.1	3.7	6.4	0.8	2.0	0.2
	'16	33.9	26.0	15.6	9.5	4.8	5.6	3.0	1.4
읍·면	'14	21.5	17.3	11.3	10.8	18.2	1.0	2.3	0.9
	'16	23.0	26.5	10.3	7.1	14.2	13.3	2.4	2.7

주: 2014년 조사에서는 '관련정보부족' 항목이 포함되었음(대도시: 16.8, 읍·면: 16.7%)  
 자료: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둘째, 문화·여가 부문의 관련 인적 기반이 증가함.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문화이모작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의 문화인력 발굴 및 양성이 이루어짐.
  -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한 문화활동가 인력은 376명임('15년 143명, '16년 140명, '17년 93명).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를 매년 천 명이상 배치를 지원함('15년 1,080명, '16년 1,200명, '17년 1,200명).
  - 다만 생활 체육지도사를 지역별 수요에 의해 파견했다기 보다는 정책적 공급측면에서 파견하고 있어, 향후 지역수요(동아리별) 및 각 지역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지도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3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제언

- 꾸준히 농촌의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농촌은 여전히 문화·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함. 따라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



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문화·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충분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4점(7점 만점)으로 나타남. 보통(4점)에 못 미치는 수치로서 문화·여가 인프라 측면의 불충분함을 나타냄.

-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 예컨대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함. 다만 해당 사업의 포커스가 농어촌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지역의 필요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함.
  - 고령화 심화, 문화 향유 기반 열악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체계와 사업 내용, 성과목표 설정 등이 필요함.
  
- 관련 사업의 목표(성과지표)가 물적, 양적 지표에 치우쳐 주민의 만족 또는 체감과 같은 질적 목표가 고려되지 못함. 사업 특성에 맞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수립이 필요함.
  - 기존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시설 개소수가 성과지표임.
  -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조성 등으로 인한 독서량 증가, 영화관람률, 영화 관람을 통한 만족도, 삶의 질 영향도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 2.1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개요

#### 2.1.1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 지역은 문화·여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이 취약함. 지역적으로 문화·여가를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상황임. 즉, 도시와 농어촌의 문화·여가 격차를 줄이고자 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함.
-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 소외지역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제2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함. ①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②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③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④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⑤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⑥ 지역개발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계(문화부·농식품부 소관) 사업을 포함함.

#### 2.1.2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제3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①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제공, ②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③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④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함.
  -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지원 목적이 있음.

-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 사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함.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문예회관을 통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함. 지원내용은 민간 및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원 등임.
- 찾아가는 도서관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정보취약계층 어린이 밀집기관에 찾아가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에게 책을 제공함.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2.2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추진 실태 평가

### 2.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제약과 접근성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하지만 정책군 내 사업들은 농어촌에 특화하여 설계한 내용은 아님.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 중에서도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제적 문화소외계층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도 수혜 대상임.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간극을 메워주는 사회보장 차원의 지원임.
  - 다만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에 한정된 사업은 아님.
  - 또한 농어촌은 문화 향유 기반이 부족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다양화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령자 중심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정보 접근성 등 문화누리카드의 활용방식이 제한적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해당일과 그 주간에 전국에서 열리는 영화·공연·전시·문화제·프로스포츠 등 관람 할인 및 기획프로그램 개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함.
  - 문화가 있는 날이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농어업인 등 지역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가 향상될 수 있긴 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문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
  - 전국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나눔으로써 지역의 문화 격차를 감소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문예회관이 속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에 차등이 있긴 하나 광역시와 군 단위 문예회관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하는 등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은 아님.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임.
  - 예산규모가 매우 적어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017년 찾아가는 박물관 5,8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9,000만 원). 또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방식에서 농어촌에 특화된 내용이 없음.

-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사업은 2018년도부터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외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문화 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공모를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모사업의 특성 상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에 따라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됨. 농어촌 지역에 사업이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관심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2.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계획된 사업 예산의 집행과 실행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짐. 계획수립,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전반의 일정이 당초 일정 계획대로 진행됨.

## 2.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을 제외하고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내 각 사업이 설정한 성과목표를 100% 이상 달성함.
  -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이용자 수를 성과목표로 제시하였는데, 매년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함. 이용자 수는 '15년 164만 명, '16년 145만 명, '17년 152만 명이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각각 105.8%, 104.3%, 102.7%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참여 프로그램 수를 성과목표로 제시함. 참여 프로그램 숫자는 '15년 2,081개, '16년 2,657개, '17년 2,835개로 증가함.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는 각각 115.6%, 110.7%, 103.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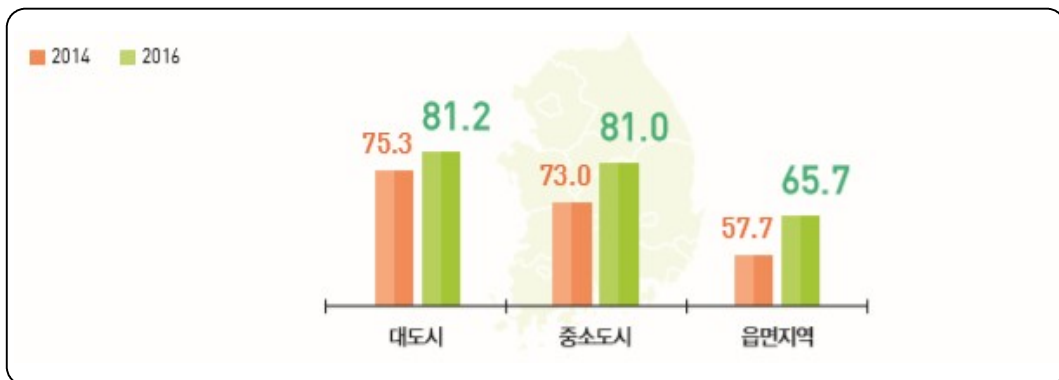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는 공연 관람객 수(수혜인원)로서 매년 목표치를 크게 상회함. 공연 관람객 수는 '15년 527,805명, '16년 654,982명, '17년 716,318명으로 증가하였고, 목표달성도는 각각 116.3%, 118.9%, 128.3%임.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제시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15년 88.1점, '16년 88.3점으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함. '17년은 87.0점의 만족도를 나타내 목표 달성도가 98.4점으로 다소 감소함. 하지만 만족도 점수의 임계적 특성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치임.
-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음. 기존의 시설 인프라 조성(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서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예술단체의 순회공연·전시 확대 등 공급자가 수요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공급 방식을 확대함.
-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함.
- 하지만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정책군 내 사업들은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2.3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 제언

-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정책사업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도시 81.2%, 읍·면 65.7%(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6년 관람율은 2014년과 비교할 때, 대도시 5.9%p, 읍·면지역 8%p 상승함.

〈그림 2-1〉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자료: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다만, 해당 사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담보하기 어려움. 대부분 성과지표가 참여자 수나 이용자 수와 같이 양적 지표임. 더욱이 사업 추진 체계와 내용, 방식에 있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요컨대 정책 성과목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함.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수(카드 발급매수 집계) '15년 164만 명, '16년 145만 명, '17년 152만 명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15년 2,081건, '16년 2,657건, '17년 2,835건
-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공연 관람객 수 '15년 527,805명, '16년 654,982명, '17년 716,318명
-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수 '15년 100개, '16년 100개, '17년 110개

-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 추진 체계 및 내용을 기획한 사업이 필요함. 농어촌

주민을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사업 추진 체계나 방식, 내용 등에 있어 농어촌 공간에 대한 특수성 이해는 부족함.

- 예컨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이 필요함.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서비스가 필요함.
-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시설, 단체 등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짐.
- 인프라, 프로그램, 인적 기반 등 농어촌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6점(7점 만점)으로 나타남. 보통(4점)에 못 미치는 수치로서 전반적인 문화·여가 향유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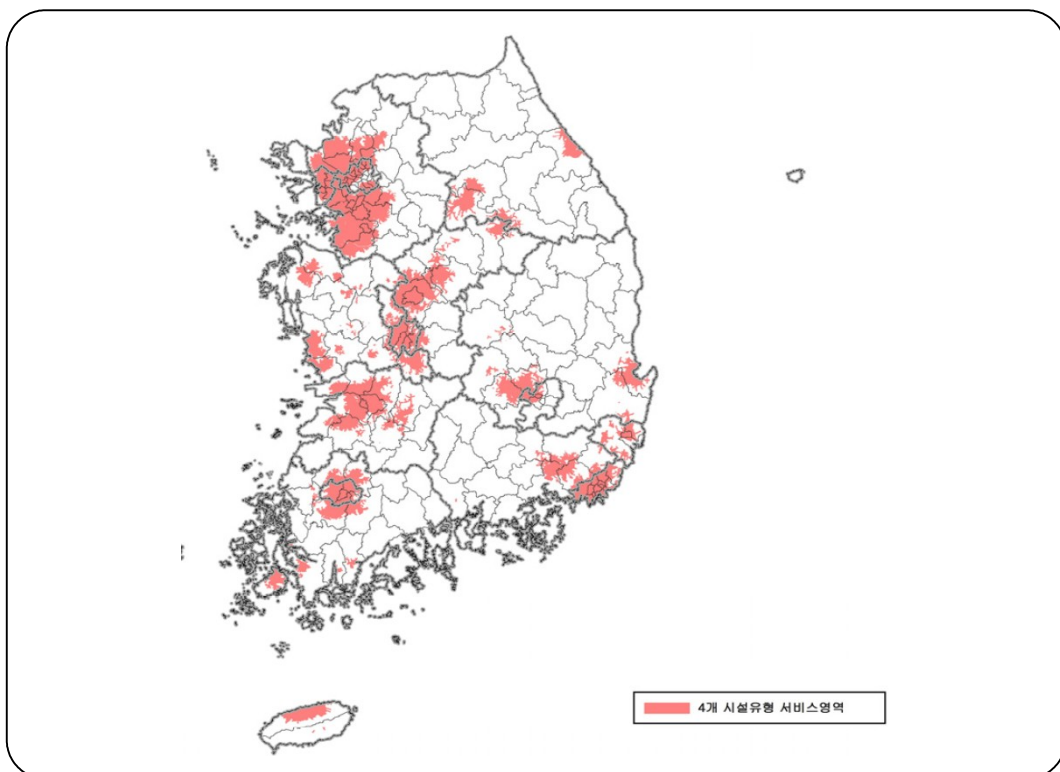


### 3.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 - 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

#### 3.1.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 도입의 배경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기회가 적은 농촌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문화향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농촌주민의 접근성이 열악함
  -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권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비스 권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와 지역거점 도시임을 알 수 있음

〈그림 2-2〉 문화기반시설의 서비스 권역 중첩 지역



자료: 양혜원(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145쪽

- 도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문화접근성이 취약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문화향유기회의 양적 격차만이 아니라 문화향유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관람률: 읍·면 3.7회/52.7%, 대도시 5.1/72.5% (문화체육관광부, 2012,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

〈표 2-7〉 문화·여가 부문의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 결과

지역민 참여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27.4%, 면·마을단위 작은 문화공간 지원 24.2%,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19.4%, 문화시설 교통편의 지원 8.1%
“실질적인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참여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시설이 거의 읍에 있기 때문에, 면지역에서는 누리고자 하는 시도도 못하고 있음”, “노령자에게 적합한 문화·여가 공간 필요”

- 개인에서 공동체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으나 농촌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문화향유에 맞춰져 있고 농촌다운 공동체를 활용한 사업이 부재함
  - 새로운 삶의 질 정책기조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요 키워드는 ‘농어촌다움’, ‘농어촌의 가치’, ‘지역공동체’, ‘농어촌 맞춤형·특화’,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쌍방향 네트워크’임

〈표 2-8〉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기조 방향

구 분	과 거	미 래
이 념	도시 수준 위한 도-농격차 완화	농어촌다움·농어촌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분야 연계·통합 지원
추진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 및 중간조직 강화
평가·환류	하향식 ▶ 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 문화정책의 기조가 문화향유의 대중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문화의 민주화’에서 고급문화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는 ‘문화민주주의’로 바뀜
  - 문화민주주의를 핵심가치로 삼은 「문화기본법」이 2014년 제정됨

- 새로운 정책기준에 따라 문화·여가분야 목표를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군 중 하나로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주민의 능동적 문화참여 확대)’를 설정
  - 성과목표에 문화인프라로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과 농어촌 특화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를 위한 핵심지표로 ‘문화동호회 참여율’이 새롭게 포함됨

### 3.2.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3.2.1. 생활문화센터 조성 (5-2-1)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기존 문화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다목적홀, 체육공간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2019년까지 138개소)
    - \* 거점형은 1,000㎡ 내외(시군구 설치), 생활권형은 200㎡ 내외(읍·면동)로 조성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추진 사업
  - 사업목표(목적):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회합·발표 및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 사업기간: 2014년~단년도 계속
  - 지원조건: 지자체자본보조(국비 보조율 30%)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수혜자): 일반국민
  -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지자체)→사업적정성검토 및 사업계획 컨설팅(문체부)→사업추진(지자체)/사업별 전담 컨설팅 지원(문체부)→사업점

### 검 및 평가(문체부)

- 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표 2-9〉 생활문화센터 조성(5-2-1) 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연도	추진실적
2015	○15개 시·도 36개 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신규 조성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및 이용자 대상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 병행
2016	○시설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1월~/37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시설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3월~/공간조성 6명, 운영방안 6명) ○운영 담당자 통합 워크숍 개최(6월),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10~12월/9개소), 생활문화센터 네트 워크 지원 사업 실시(11월~/8개 권역)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2017	○생활문화센터 23개소 신규 조성, 누적 128개소 조성 지원
2018 (계획)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회합·발표 및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9개 시·도 14개소 신규 조성 지원)

### 3.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5-2-2)

####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주민악단, 공공미술, 공동체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지역별 예술단체 당 10~60백만 원, 최대 3년 지원
  - \*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공동체 2019년까지 150개소

####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추진 사업

- 사업목표(목적):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 사업기간: 2018. 1. ~ 12.
- 지원조건: 민간보조(정액), 체육기금 100%
- 사업시행주체: (재)지역문화진흥원
- 지원대상(수혜자): 사업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기관 시설 및 주민조직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문체부)→공모 및 심사(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사업수행(선정단체)→모니터링 및 컨설팅(지역문화진흥원, 전문가)→사업평가(체육기금 사업 평가 등)→정산(선정단체→지역문화진흥원)→실적 및 결과보고(지역문화진흥원→문체부)
- 법적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표 2-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5-2-2) 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연도	추진실적
2015	○문화예술교육, 주민동아리, 주민강사육성, 마을축제, 주민간담회 및 공동체 교육, 주민운영위원회 등 운영비 지원 - 2015년 기준, 12개 시도 27개 지역(농산어촌 14개 지역/51.9%) 지원 - 3,691건 활동(1개 단체 평균 136.7건 프로그램 운영) 및 40,212명 수혜 ○컨설팅, 현장모니터링 30회 및 워크숍 6회 진행
2016	○문화예술교육, 주민동아리, 주민강사육성, 마을축제, 주민간담회 및 공동체 교육, 주민운영위원회 등 운영비 지원 - 2016년 기준, 12개 시도 27개 지역(농산어촌 15개 지역/55.5%) 지원 - 3,632건 활동(1개 단체 평균 134.5건 프로그램 운영) 및 64,870명 수혜 ○전문가 현장 컨설팅 54회, 현장모니터링 30회 및 워크숍 5회 진행
2017	○마을현황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동체 교육, 주민운영위원회 운영, 문화예술교육, 주민동아리, 주민강사육성, 마을축제 등 마을의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2017년 기준, 15개 시도 44개 지역(농산어촌 18개 지역/41.95%) 지원 - 3,471건 활동(1개 단체 평균 80.7건 프로그램 운영) 및 67,452명 수혜 ○현장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52회, 운영 및 컨설팅 워크숍 13회 진행

### 3.2.3.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5-2-3)

####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선정, 1개 마을당 연간 0.8억 원 내외 3년간 지원
- \* 문화마을: (2014) 2개소 → (2015) 13개소 → (2019) 50개소

####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추진 사업

- 사업목표(목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 사업기간: 2014년~계속
-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정률 40%)

-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수혜자): 지역 내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을 안에서 주민의 공동체적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 사업추진체계: (문화부) 사업 기획 및 컨설팅 등 지원,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지자체) 주민협의체 등 활동 공간 제공, 예산지원 등, (주민협의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문화기획자 및 마을리더 등 사업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문화공동체 구성 등 사업 추진 핵심 주체, (문화도시·문화마을자문평가단) 문화도시·마을별 기획인력·주민교육, 컨설팅 실시, 사업 홍보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법적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표 2-11〉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 사업의 연차별 주요 내용

연도	추진실적
2015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마을 조성 지원(13개소, 1,040백만원) - (2014년) 2개소→(2015년) 13개소 확대
2016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마을 조성 지원(29개소, 2,880백만원) - (2014년) 2개소→(2015년) 13개→(2016년) 29개소 확대
2017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마을 조성 지원(32개소, 2,880백만원) - (2014년) 2개소→(2015년) 13개소→(2016년) 29개소→(2017년) 32개소 확대
2018 (계획)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성과 공유 및 확산 ○지자체 대상 홍보를 통해 지속적 지원 확대 필요

〈표 2-12〉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5-2) 정책군의 사업별 목적, 내용, 목표(총괄)

사업명	사업목적(시행계획)	기본계획 주요내용	성과목표
생활문화센터 조성 (5-2-1)	○주민 동호회 등의 연습·회합·발표 및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기존 문화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다목적 홀, 체육공간 등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 조성 ○거점형 1,000㎡ 내외(시군구 설치), 생활권형 200㎡ 내외(읍·면동)로 조성	○2019년까지 138개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5-2-2)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주민약단, 공공미술, 공동체 연극 영화 등 문화 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지역별 문화예술 기관시설단체 및 주민조직 당 20~50백만 원, 최대 3년 지원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공동체 2019년까지 120개소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5-2-3)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 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역량이 높은 마을 선정, 1개 마을당 연간 0.8억 원 내외 3년간 지원	○문화마을: 2014년 2개→ 2015년 13개→2019년 50개

### 3.3.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 추진 실태 평가

#### 3.3.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 정책 목표의 합리성

- 본 정책군의 목표는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제고'임
- 이러한 정책 목표는 개인을 대상으로 고급문화를 제공하는 이른바 '문화의 민주화' 전략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문화민주주의' 전략으로 전환된 문화정책 방향에 부합됨
  - \*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존의 관점(문화의 민주화)에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문화 '참여'의 관점으로 전환(문화민주주의)
- 본 정책군은 개인의 문화참여만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 단위의 문화 활동을 강조하는데, 이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핵심 키워드인 '주민참여형', '공동체형', '농촌특화형(농촌다움)' 등에 부합됨
  - \* 기존의 문화시설 조성은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1시군 1개소)로 조성되었으나, 생활문화센터(생활권형)는 읍·면·동을 단위로 조성
  - \*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읍·면·동을 단위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근린생활권(마을)을 기준으로 지원

##### ○ 목표-수단 간 연계성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소외지역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공 문화시설의 생활문화 기능 강화', '주민 주도의 자생적 생활문화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이 제시됨
- 시행계획에는 정책군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5-2-1), '생활문화공

동체 만들기'(5-2-2),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이 제시되고, '생활권 기반 공공 문화시설의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농어촌지역 작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학교 등의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주민 주도 커뮤니티 공간의 생활문화 공간화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은 빠져 있으나, 이러한 사업은 세 사업에 포함되거나 다른 정책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주민의 문화참여를 확대(정책군의 목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권(마을) 내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이 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수단은 타당함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2012)에 따르면 직장이나 집에서 문화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 늘어날 때마다 문화시설을 찾는 횟수가 0.123회가 줄어듦
-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주민의 문화향유 참여접근성을 제고하는 하드웨어 사업이라면,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는 마을 내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문화마을 조성은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종합 사업의 성격을 지님

#### ○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제시

- 생활 속에서 문화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집과 직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생활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이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주민이 직접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매개인력과 강사가 필요하고, 개인의 활동이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다양한 활동이 기획되어야 함
- 본 정책군에서는 생활 속 생활문화시설의 조성 과 프로그램의 제공, 공동체적 활동으로의 유도 와 관련하여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지역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매개 또는 촉진인력, 기획자)과 관련된 사업 과 문화참여의 핵심요소로 꼽히는 동호회 관련 사업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특히 농촌지역 주민의 동호회 참여경험률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문화·여가여건 향상’의 성과지표(성과목표: 2013년 1.9%→2019년 4%)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업은 시행계획에 담겨 있지 않음
- 지자체의 재정 여건 상 신규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 문화시설이 노후화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노후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주민 주도 커뮤니티 공간의 생활문화 공간화를 위해 리모델링 지원’이 과제로 설정되어 있을 뿐 실제 시행계획에는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음

### 3.3.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 정책 집행 실적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연 초에 사업대상지가 결정되면서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매년 예산 집행률이 낮았으나, 2017년 지원대상 사업부터 2016년 하반기에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로 사업대상지를 미리 선정함으로써 지자체 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산 미집행률이 줄어듦

\*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2015년 76.2%, 2016년 70.4%, 2017년 97.1%

〈표 2-13〉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015년	계획	13,500	31,500		45,000
	결산	11,336	22,951		34,287
2016년	계획	14,000	31,500		45,500
	결산	9,960	22,073		32,033
2017년	계획	7,280	15,470		22,750
	결산	7,045	10,800		22,100
2018년	계획	8,036	10,715		18,751

자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각 년도.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100%임

〈표 2-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015년	계획	1,200		1,200
	결산	1,200		1,200
2016년	계획	1,080		1,080
	결산	1,080		1,080
2017년	계획	1,080		1,080
	결산	1,080		1,080
2018년	계획	1,300		1,300

자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각 년도.

〈표 2-15〉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2015년	계획	1,040		1,560	2,600
	결산	1,040		1,560	2,600
2016년	계획	2,880	4,320		7,200
	결산	2,880	4,320		7,200
2017년	계획	2,986	4,479		7,465
	결산	2,986	4,479		7,465
2018년	계획	2,060	3,090		5,150

자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각 년도.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 사업은 국비 지원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않았더라도 지원 방식이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에 도움을 주었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2015년에 국비를 일반회계로 지원해주었고, 센터 조성 대상 건물가액을 지방비로 적용하여 재정자주도가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었으며(2016년부터 지원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 컨설팅·운영인력·활

성화사업을 지원해줌으로써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농촌에서 생활 문화센터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함

〈표 2-16〉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지원 예산 및 규모

구 분	거점형	생활권형
총 조성비	총 조성비 20억 내외 * 조성 규모에 따라 지원액 변경	조성비 3억 내외 * 조성 규모에 따라 지원액 변경
국고보조금(30%)	6억 내외	1억 내외
지방비(70%)	14억 내외	2억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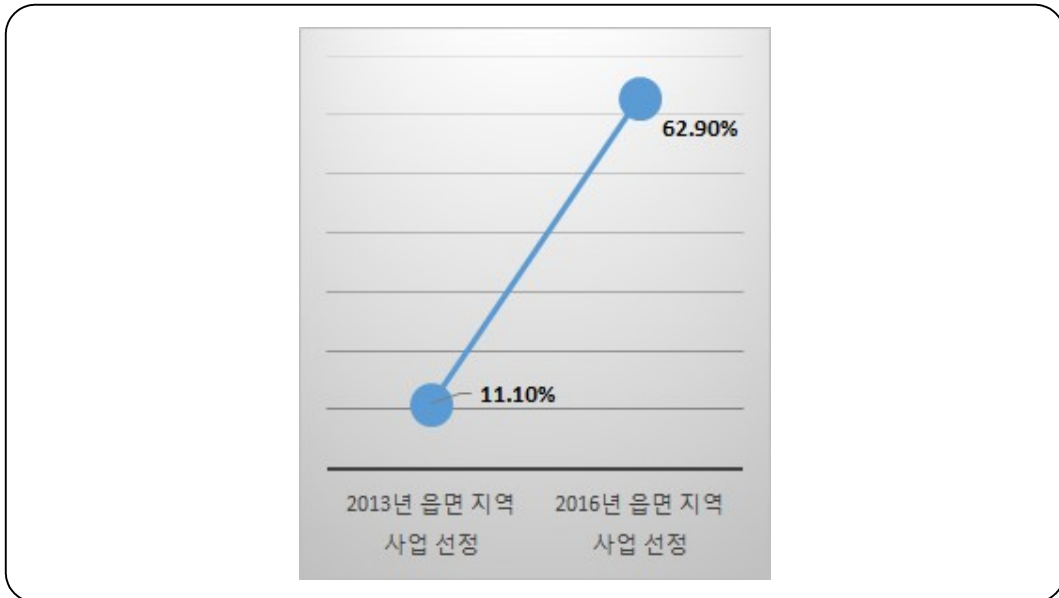
\* 총 조성 사업비에는 리모델링 대상 공간 및 장비 등 지자체의 현물 제공비를 포함하며 동 비용을 지방비에 적용: 총 조성 사업비: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포함)+공간 및 장비 등 지자체 현물비(부지비 제외한 리모델링 대상 유휴 및 기존시설 공간의 건물가액과 장비 등)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조성사업의 경우,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춰 농촌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음 (2013년 27개 지원 사업 가운데 읍·면은 3개이었으나, 2016년에는 27개 지원 사업 가운데 읍·면이 17개(읍 5개, 면 12개)로 농촌 지원 비율이 증가)
- \*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중 인력비용에 30%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이는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집행은 아니나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문화 관련 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징임
- 전체반적 사업예산(합계)은 큰 변동이 없으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2015년 45,000백만 원에서 2018년 18,751백만 원(계획예산)으로 감소하였으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다른 문화나눔 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지 않음
- \* 2016년 기준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중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산이 200억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15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0%, 87.5%에 증가했지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예산은 2009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음

○ 정책 집행 과정

-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노력은 사업별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설의 조성  
과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임
-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주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간설  
계와 공간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지원하여 새로운 정책방  
향과 삶의 질 정책기조에 맞춘 공간 조성과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림 2-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읍·면 지역 선정 현황



〈표 2-17〉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컨설팅단 개요

- 운영목적: 공간, 프로그램, 운영체계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사 선정 지원
- 구성방향
  - 생활문화 관련 공간설계, 정책연구, 문화기획 전문가 등 15인 구성
  - 3인 5개조,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조별 7개 시설 할당) ※ 조별 공간설계 전문가 필수 포함
- 운영지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이후 지원기관 변경)
- 운영계획
  - 현장실사: 5개조(3인 1조)로 시설 현장실사 및 평가, 시설별 컨설팅 의견 작성 등
  - 사업계획 보완 워크숍: 사업 정책방향에 대한 공유 및 컨설팅위원, 지자체가 참여하여 분임조별 컨설팅 진행하여 지자체의 사업계획 보완 수립
  - 중간점검 워크숍: 각 지역별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에 점검 및 우수사례 교류
  - 성과점검 워크숍: 사업성과 점검, 문제점 분석 및 차년도 사업 개선방향 등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운영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연 평균 50여회, 운영 및 컨설팅 워크숍을 연 평균 10여 회 진행하였음
-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광역 전담 2인과 전문분야 수명(정책/지역/문화/관광/공간 각 분야)을 컨설팅단으로 구성하여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사업 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컨설팅을 지원해줌

〈표 2-18〉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컨설팅단 개요

- 운영목적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문화도시형-문화마을형)의 사업계획 - 실행 - 지원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추진성과 극대화 도모
- 기능 및 임무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시 각 도시의 사업추진 자문 및 현장컨설팅 지원
  -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로 성과 확산 지원 등
-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연차별 권역별 컨설턴트 편성 및 운영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괄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운영) 광역 전담 2인+전문분야  $\alpha$  (정책/지역/문화/관광/공간 각 분야)

- 정책군의 사업은 지역문화진흥원(생활문화센터 조성), 한국문화원연합회·지역문화진흥원(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대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컨설팅 지원, 사전 지자체 및 관련 단체 설명회 개최,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능하였음
- 지자체와 무관하게 관련 단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외에 두 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으며,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 시에 의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음

### 3.3.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목표달성 여부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성과목표가 100% 달성되지 못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7년(88%)을 제외하고 2015~2016년 모두 95%를 넘어 양호한 것으로 보임

〈표 2-19〉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생활문화센터 조성(개소)	1 (정량)	목표	48	70	92	95	사업 교부내역
		실적	47	67	81		
		달성도	97.9	95.7	88		
측정산식(측정방법)	전국 도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누적)						
목표치 산출근거	지원 개소 수 측정/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 결정(지특회계)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첫 번째 성과목표인 수혜자 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계획 대비 100%를 상회하였으며, 두 번째 성과목표인 수혜자 만족도는 계획 대비 100%를 상회하였음

〈표 2-2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5-2-2)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①수혜자수	1 (정량)	목표	42,185	39,955	64,870	60,387	예술단체 성과보고서 수혜자 수 집계
		실적	40,212	64,870	67,452		
		달성도	95.3	162.1%	103.98%		
측정산식 (측정방법)	① ∑(지원프로그램 수혜자수)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기금이 변경(복권기금→체육기금)됨에 따라 복권기금의 성과목표가 아닌 자체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사업목표 설정,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의 105% 적용.						
①수혜자 만족도	0.6 (정량)	목표	85.5	85.8	88.6	88.0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복권기금사업 성과 연구용역"의 만족도조사 결과 점수
		실적	85.2	85.8	88.613		
		달성도	100.3	102.7	100.02%		

(계속)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측정산식 (측정방법)	② {Σ(7점 척도-1)X16.7}/전체응답자수						
목표치 산출근거	사업의 장기지속으로 인해 매년 목표치를 상향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실적대비 0.6%반영,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 편람(안) 적용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100% 이상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표 2-21〉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5-2-3)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 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문화마을 조성 지원 개수(개)	1 (정량)	목표	13	23	32	25	지원 실적
		실적	13	29	32		
		달성도	100%	111.5%	100%		
측정산식(측정방법)	지원 개수						
목표치 산출근거	시도자율편성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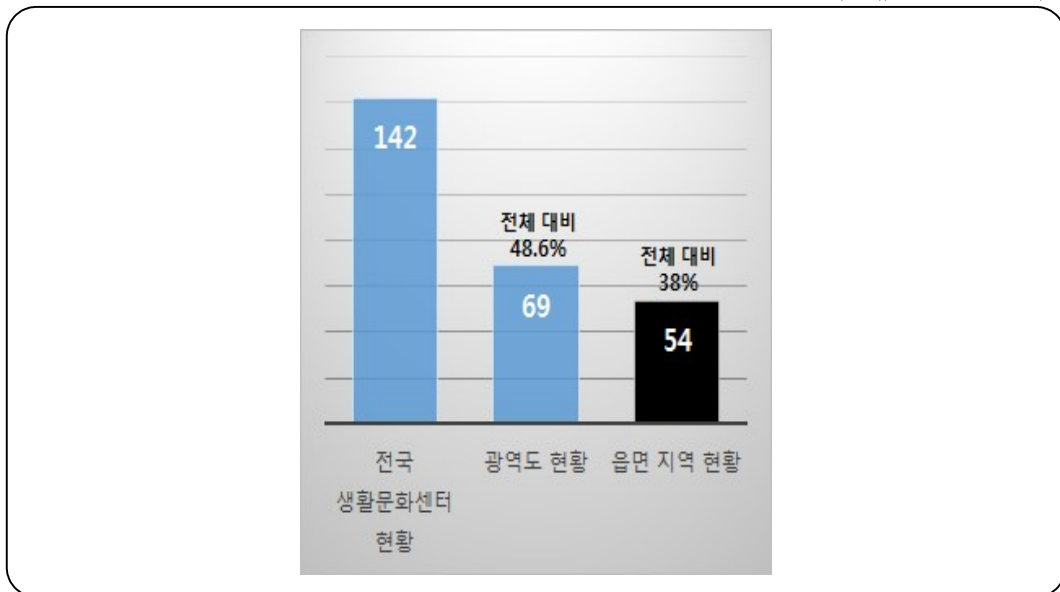
- 그런데 본 정책군의 사업별 성과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향후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가 ‘전국 도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도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목표에 더 부합하였음
  - \* 예를 들어,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도 단위 생활문화센터 수에 따르면, 전라북도에 14개소가 조성되었으나, 실제 읍·면 단위에 조성된 센터는 7개소(고창군 1, 완주군 4, 장수군 1, 진안군 1)에 불과함
  - \* 또한, 시설 조성이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반이지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매개인력의 활동이 시설 접근성에 중요한 바, 향후 성과지표에 ‘시설 개소 수의 합’ 외에 ‘프로그램 수의 합’ 또는 ‘시설 내 매개(전문)인력 수의 합’ 등이 추가되어야 함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공동체를 만들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수혜자 수나 만족도 외의 공동체 회복 및 지속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새롭게 제시되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에서도 성과지표로서 수혜자 만족도의 어려움을 호소: 사업의 장기지속으로 인해 매년 목표치를 상향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3개년 실적 대비 0.6%를 반영하여 연차별 만족도 성과목표를 설정)
- \*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시도자율편성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 실적을 감안하여 연차별 목표치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일정비율의 문화마을 조성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춰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그림 2-4〉 생활문화센터 현황

단위: 개, 2018년 8월 기준





## ○ 정책 파급 효과

- 주민주도형 운영, 생활밀착형 조성,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반영한 지원,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본 정책군의 사업은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문화민주주의 전략에 기초하여 주민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직접 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함
-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조성 사업의 경우 2017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에서 수혜자 종합만족도 1위(88.6점)를 차지함
  -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우, 복권기금 나눔사업 비용편익효과가 1.08로 사업의 예산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었으며(복권기금 사업 중 비용편익효과 1위), 사업효과성 분석(참여자-비참여자 간)에서 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거주지역 만족도, 삶의 품격, 사회자본, 주민 교류 정도, 공동체 간 관계 인식 등이 향상되었음

〈표 2-2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5-2-2) 사업의 사업효과성 분석 결과

조사지표	조사결과
삶의 만족도	수혜자(75.7점) 가 비수혜자(70.7점) 에 비해 5점 높음
여가생활 만족도	수혜자(69.7점)가 비수혜자(63.0점)에 비해 6.7점 높음
거주지역 만족도	수혜자(84.3점)가 비수혜자(74.6점)에 비해 9.7점 높음
주민과 일상적 교류 정도	수혜마을(22.6명)이 비수혜마을(10.1명)에 비해 12.5명 많음
공동체 간 관계 인식	수혜마을(87.9점)이 비수혜마을(79.1점)에 비해 8.8점 높음

- 하지만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설문조사에서 문화·여가 부문 중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에서 전체 1순위로 꼽혔으나 우수한 정책과제에서는 전체 4위로 나타나, 농촌주민이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표 2-23〉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중 문화·여가 부문 정책 과제

단위: %

설문 문항	중요한 정책 과제	우수한 정책 과제
①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26.7	26.4
②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24.7	24.0
③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27.1	23.7
④ 전통·향토문화의 전승 활용	21.4	25.9
합계	100.0	100.0

\* 복수응답 문항으로 1, 2순위 합쳐서 집계함

- 이는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에 속한 개별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낮지 않으나, 정책군과 관련된 농촌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향후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말해줌

### 3.4.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 3.4.1.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 반영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20~2024) 전체에 적용되는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와 방향을 적용

- 2018년 5월 16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자율성

〈표 2-24〉 문재인정부의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 및 9대 의제

3대 가치	9대 의제
① 개인의 자율성 보장 • 자율성: 개인의 권리와 생각이 타인·집단·국가로부터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	① 개인의 문화적 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의 실현
②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 다양성: 성별, 세대, 지역,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정치적 견해 등의 문화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③ 사회의 창의성 확산 • 창의성: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서 사회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문화동력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문화정책과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 문화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둘째, 문화 참여의 영역과 내용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 문화 참여의 결과이자 주요 영역으로서 문화의 창의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음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를 적용하여 △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문화향유 활성화, △ 농촌 특화형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 창의 교육과 활동 증진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
- 문화향유 경험이 적은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은 문화향유와 문화교육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문화 참여’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초기 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교육과 강좌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강좌프로그램 확대 및 동호회 지원 등을 병행 추진
  - 향유하는 문화 장르의 다양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문화 참여 방법의 다양성, 향유하는 수준(질)의 다양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형 지원 사업을 개발함
  -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넘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농촌에서도 활성화되도록 인력(문화기획자, 문화메이커스 등) 양성과 창의 교육,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확산과 관련한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함

### 3.4.2.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인력 양성과 운영지원에 집중

- 생활문화시설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예산과 운영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도시와 농촌 간 생활문화센터의 문화인력에 차이가 있음
- 2017년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센터별 평균 운영인력은 평균 2.8명이며 상근 전담인력은 평균 1.0명에 불과한데, 특히

도시센터는 1.3명인 것에 비해 농촌센터는 0.5명으로 도농 간 격차가 큼

〈표 2-25〉 생활문화센터 전체 운영인력 현황(평균인원 수)(2017년 기준)

구분	사례수	전담인력	전담인력		겸직인력			합계
			비상근유급	비상근무급	상근	비상근유급	비상근무급	
전체	79	1.0	0.2	0.2	1.1	0.1	0.1	2.8
도시	42	1.3	0.2	0	1.0	0.2	0	2.8
도농복합	16	0.9	0.3	0.6	1.4	0.1	0.3	3.6
농어촌	21	0.5	0.2	0.1	1.0	0	0.1	2.0

- 2017년 생활문화센터 실태조사(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운영예산을 받는 센터는 전체 78.5%이며, 도시센터는 90.5%가 지원을 받는 반면 농촌센터는 61.9%만 지원을 받고 있음

〈표 2-26〉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여부(2017년 기준)

구분	사례수	받고 있다.		없다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전체	79	62	78.5	17	21.5
도시	42	38	90.5	4	9.5
도농복합	16	11	68.8	5	31.3
농어촌	21	13	61.9	8	38.1

-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성만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후속 지원이 미흡하여 운영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는 바, 신규 시설을 조성하거나 기존 외관 조성비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존 시설을 활성화는 운영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업이 바뀌어야 함
- 문화기획자는 생활문화시설 활성화의 핵심요인으로, 주민의 문화향유와 동호회 활동에 대한 관심은 문화시설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전담인력에 의해 좌우되며, 농촌 특수성에 맞는 참신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도 문화인력에 영향을 받음

- 정부의 문화인력 양성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 맞는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함
- \* (사업예시) 문화비전2030의 ‘문화청년 일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청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문화청년 일만시간 과정: 준비-진입-활동-재도약-재충전)

### 3.4.3. 농촌의 특수성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발굴 및 지원

-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높을수록 문화향유에서 적극적 문화 참여로 나아가고 향유하는 문화 장르가 다양해지는 옴니보어(omnivore, 포괄적 감상자) 특성을 보이며,<sup>1</sup> 문화비전2030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창의적 문화활동의 핵심과제로 설정함

〈표 2-27〉 문화비전2030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의제 및 세부사업 현황

대표의제	세부과제	세부사업
문화권 실현을 위한 여가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li> <li>○기존 지역 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능 및 역할 강화</li> <li>○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동아리의 역량 강화 및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연계하여 시민예술가 양성</li> <li>○중고등학생의 대중문화·뉴미디어·뉴스수용능력 교육도입 및 성인대상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확대 운영</li> </ul>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과 콘텐츠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확대</li> <li>○아동·청소년 등이 창의적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 운영</li> <li>○예술대학과 문화시설이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도입 추진</li> <li>○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관을 문화 체험·학습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복합문화공간(메이커 스페이스)으로 기능 전환</li> </ul>

1 “문화 분야 간 자유로운 이동, 문화적 폭넓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었다. 문화예술교육 경험요인은 소극적 문화향유보다 적극적 문화향유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략)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교육이 교육된 포용력(educated tolerance)을 길러주어 여러 분야와 장르를 폭넓게 수용하는 옴니보어 태도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Bryson 1996)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기 교육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장세길 2016: 299)

- 문화비전2030의 세부과제를 활용하여, 농촌의 특수성(고령사회, 인적자원의 부족)이 반영되면서 농촌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사업예시) 농촌노인세대를 위한 미디어교육,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대중문화 및 뉴미디어 교육과 뉴스 수용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사 및 강사 지원 등
- 농촌주민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 정부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활용하되, 농촌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주민의 수요에 맞춰 지원함

〈표 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의 예술치유 관련 사업 현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치유) 심리적 상처의 회복과 사회복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확대 및 개선(17년 80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예술교육 및 신규 분야 확대, 감정노동자 등 대상 발굴</li> <li>* (기존)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분야 → 문학, 사진, 영화 등 신규 분야 발굴</li> <li>* 정신의학, 심리학, 심리치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검토</li> </ul> </li> <li>○ (치매 예방) 치매예방을 위한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매예방센터와 협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크리에이티브에이징(Creative Ageing) 사례: 농촌 히어포드셔의 노인 고립 이슈에 대응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히어포드셔 전역 요양기관에 특별 예술 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트레이닝, 노인예술 프로젝트 운영 및 알츠하이머 소사이어티(Alzheimer's Society) 등 외부기관과 협력 활동 추진 중</li> </ul> </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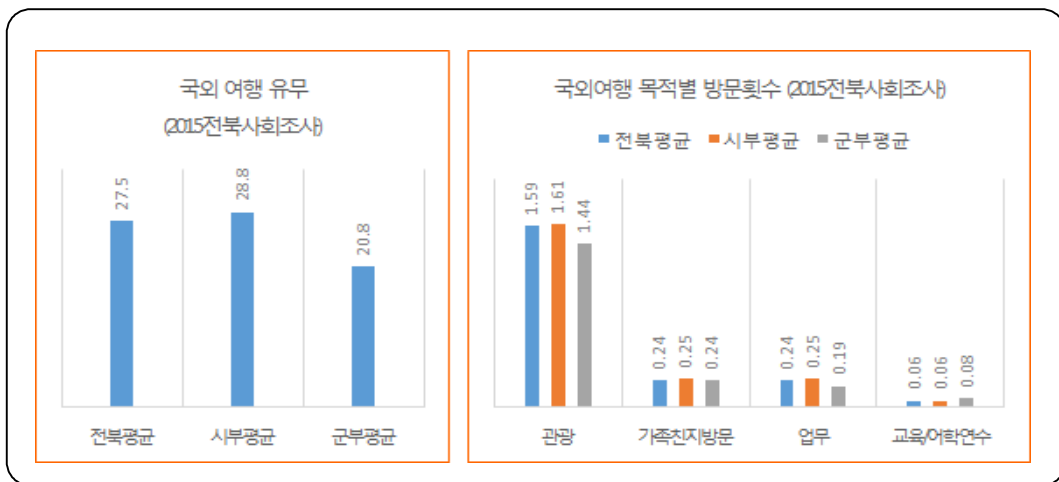
### 3.4.4. 문화·여가 핵심영역으로 농촌주민의 여행증진 사업 포함 <sup>2</sup>

- 문화·여가 영역에서 핵심영역이 여행이나, 지자체에서는 여행지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마우처(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사업 외에 농촌주민의 여행증진을 위한 사업은 없음

<sup>2</sup> 완주군(2016), 르네상스 완주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안, 최종보고서 참조

- 전라북도 사례(2015전북사회조사)를 보면, 국외여행에서 도시-농촌 격차가 발생

〈그림 2-5〉 전라북도민의 국외여행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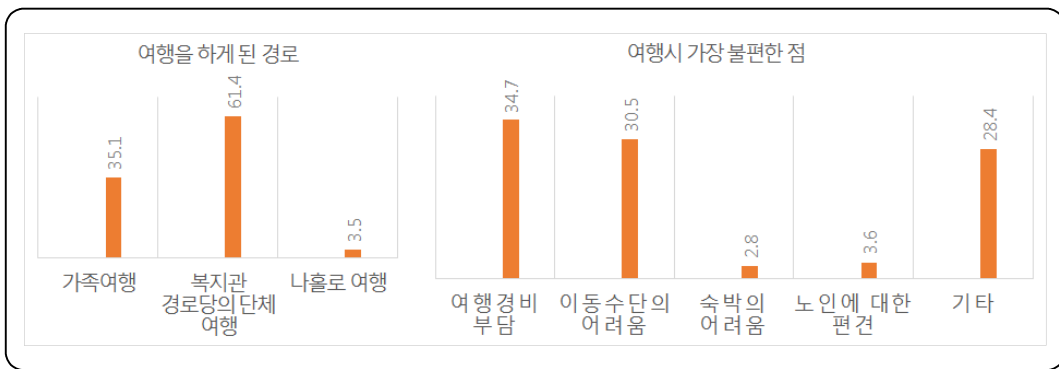


자료: 2015 전북사회조사

- 도시와 농촌 간 여행경험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국민여행증진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세부방안이 추진될 뿐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 부족함
  - 문화비전2030의 여행 증진 관련 사업: 생애주기별·계층별 문화 여가활동 지원
    - \* (중장년) 또래와 교류 등 관심사와 신체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 조성 (실버여행학교(노년):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문화센터와 연계,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
- 문화·여가의 핵심영역으로서 농촌주민의 여행증진을 포함시키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
  - 농촌주민의 여행을 개인의 여가문제로 인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질 측면에서 지원해야할 공공서비스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함

\* 여행의 불편한 점으로 여행경비, 이동수단의 응답률이 높으므로 군민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여행 이동권을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행이 활성화되는 사업이 필요함

〈그림 2-6〉 전라북도 노인의 여행 경로 및 여행 시 불편한 점



자료: 전북노인실태조사(2012)

\* 농촌주민의 여행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 여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도 사업을 진행함

〈그림 2-7〉 전라북도 여행 관련 사업





#### 4.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을 통한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증진 -

##### 4.1.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개요

###### 4.1.1.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선진 유럽의 경우 도시화·산업화를 수반하는 현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향토문화와 전통문화가 문화·여가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음.
  - 인간 이성에 의한 문화·문명의 진보를 맹신한 17~18세기의 계몽주의는 민중들에 의해 보존·전승되어 온 전통·향토문화를 통제하고 탄압함. 신중산층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나 전통생활양식에 대한 이른바 ‘생활양식 개조운동’이 확대됨.
  - 산업화·도시화가 왕성했던 빅토리아 시대(19세기)에는 농경 중심의 농촌사회, 전통사회가 따르던 계절적 순환리듬의 생활방식을 규격화, 표준화된 인위적 생활방식으로 변화시키면서, 이른바 ‘합리적 레크레이션 운동’을 통해 근대적 문화·여가 발전
  - 생활양식 개조운동 및 합리적 레크레이션 운동에 의해 농촌문화나 전통문화가 일상생활에서 붕괴되었으며, 20세기 들어서는 소비자본주의 하에 대중문화를 통한 문화·여가가 확대되면서 농촌문화 및 전통문화는 보편시장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와 함께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여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960년대 정부의 관광자원 개발, 1970년대 수도권에 편중된 국민여가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광휴양지 개발, 1980년대 국민체육진흥정책 등
  - 1990년대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대중음악, 문학, 예술, 영화 등 현대문화 중심으로

### 문화·여가정책 전환

- 2000년대 들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여가문화 활성화 대책(2004)’을 추진하여 생활주변 문화인프라 구축,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 운영,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주민을 위한 문화·여가정책 역시 서구에서 들여온 현대문화(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시설, 스포츠시설 등 시설·인프라 확충과 전문예술인 중심의 문화·여가 공급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음.
- 도시와의 문화·여가 격차를 줄이고자 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 도시민들이 즐기는 문화를 농촌주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전문예술인 중심으로 공급
  - 소위 ‘도시 따라잡기’ 방식의 문화·여가 공급정책으로 농촌의 향토문화, 그리고 도시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이제 농촌에 잔존하는 전통문화는 농촌의 문화·여가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음.
  - 즉, 서구의 생활양식 개조운동이나 합리적 레크레이션 운동과 맥락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도시 따라잡기 방식의 인프라 및 문화·예술 공급 중심의 농촌 문화·여가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즉, 인구적 영향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접근성이 수월한 도시와 달리 농촌은 공급 중심의 문화·여가정책의 효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농촌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보존·전승되고 있는 고유의 전통·향토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의 도시 따라잡기 방식의 문화·여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문화·여가 부문에 새롭게 형성되었음.
- 해당 정책군의 목표는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한편, 지역 자체의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유 브랜드 화를 촉진하는 것임.

#### 4.1.2.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주요 사업 내용

##### ■ 전통문화자원 복원 확산

- 농어촌 전통지식자원의 발굴·전승
  - 전통지식자원(민속어휘, 전통생활지식·기술, 민간의료 등)의 발굴 및 농어촌 유희공간과 시설을 통한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설, 신화, 민담 등 지역이야기 소재의 융합작품 공모 및 공연예술 지원 등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지역문화사업 육성
- 전통놀이와 같은 특별한 문화자원에 대한 복원·확산
  - 마을별, 지역별 공동체 놀이문화의 발굴 및 복원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이벤트 지원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상의 추진 사업: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광역 및 기초)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문화 특화
  - 수혜자(지원대상): 지역주민
  -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매년 10여 개 행사 개최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체 경상보조(국비 40% 내 지원)
  -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 2015년: 대구공연예술축제,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강원), 강릉단오제, 경주실크로드문화대축전, 낙동강세계문화대축전, 계룡군문화축제(충남), 부산불꽃축제 등 13개 사업
  - 2016년: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부산), 부산불꽃축제, 대구공연예술제, 대구생활

예술페스티벌, 광주임방울국악제, 강릉단오제길놀이, 영월단종국장 연출, 영월 동강축제사진제,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실행,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강원), 계룡군문화축제(충남), 실크로드 경주 2015,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경북) 등 15개 사업

- 2017년: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부산),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강원), 영월단종문화제 국장연출, 강릉단오제신통대길길놀이,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실행,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공주백제문화제 등 13개 사업
- 2018년: 금정산역사문화축제(부산), 부산불꽃축제,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 대구 핫페스티벌, 영월단종문화제 국장연출, 영월동강국제사진제, 강릉단오제신통대길 길놀이,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실행, 계룡군문화축제(충남), 2020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낙동강세계평화문화축전(경북) 등 16개 사업(계획)

## ■ 문화관광축제 지원

-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축제 지원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상의 추진 사업: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광역자치단체)
  -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축제의 문화관광 품으로 특화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축제로 육성
  - 수혜자(지원대상): 일반국민 및 외래관광객
  - 1998년 ~ 계속사업으로 매년 40개 내외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지자체 정률 보조(50%)
  -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축제컨설팅, 해외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 선정
  -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 2018년의 경우 3개 대표축제, 7개 최우수축제, 10개 우수축제, 21개 유망축제 등 41개의 문화관광축제와 40개의 문화관광육성축제 선정

〈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

- ◆ (글로벌육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 일정기간 대표축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여 명예롭게 졸업한 축제
- ◆ (대표축제 3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 (최우수축제 7개) 강진청자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평창호석문화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 (우수축제 10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 ◆ (유망축제 21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대전효문화부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항구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임실N치즈축제,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춘천마임축제, 한산모시문화제
- ◆ (육성축제\* 40개) 강릉커피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굿모닝! 양림, 대전국제와인페어, 독일마을맥주축제, 동성로축제, 부산영도다리축제, 석각리구석기축제, 세종축제, 부안오복마실축제,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연천구석기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연수능허대문화축제, 영덕대게축제, 영산강서창들녘역새축제, 울산마두희축제, 울산옹기축제,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울산태화강 봄꽃대향연, 유성온천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정선아리랑제, 이태원지구촌축제, 제주해녀축제, 종로한복축제, 탐라문화제, 태백산눈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지용제, 청송도깨비사과축제, 평창송어축제, 하동섬진강재첩문화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함양산삼축제, 횡성한우축제, 흥성역사인물축제

\* 육성축제는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축제 컨설팅과 홍보 분야의 지원을 받으며 내년도에 현장평가 등 실사를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유망 축제 진입 여부를 심사

## 4.2.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추진 실태 평가

### 4.2.1. 정책 형성에 대한 평가

#### ○ 정책 목표의 합리성

- 본 정책군의 목표는 ‘농촌에 전승되고 분포하고 있는 전통·향토문화를 복원하

고 전승·확산하여 농촌주민의 문화·여가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동 정책 목표는 해당 정책군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새롭게 도입된 취지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 ○ 목표-수단 간 연계성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전통문화자원의 복원·확산, 전통놀이 등과 같은 문화자원의 복원·확산, 그리고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위와 같은 정책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실제 시행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전통문화자원의 복원보다는 지역별 문화관광축제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주로 정책수단으로 채택됨.
- 특히, 후자의 ‘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은 수혜자(지원대상)가 농어촌 주민이 아닌 일반국민 및 외래관광객으로 타겟팅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수단(추진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제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및 농어촌 유희시설을 활용한 전통지식자원 아카이브 구축’, ‘마을별, 지역별 공동체 놀이문화 발굴·복원’,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지원’, ‘지역축제 지원으로 주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및 지역 활성화 도모’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정책사업)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업에 한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통지식자원 발굴, 농어촌 유희시설 및 공간을 통한 전통지식자원의 아카이브 조성, 지역별·마을별 공동체 놀이문화 발굴·복원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 4.2.2.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 ○ 정책 집행 실적

- 전통문화자원 복원·확산을 위해 추진된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의 경우 예산 집행을 9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100% 집행하였음.

〈표 2-29〉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국비(지특)	지방비	기타(자부담 등)	합계
2015년	계획	6,490	11,250	6,640	24,380
	결산	6,470	10,276	6,640	23,386
2016년	계획	4,900	11,936	1,030	17,866
	결산	4,900	11,936	1,030	17,866
2017년	계획	6,060	9,090	-	15,150
	결산	6,060	9,090	-	15,150
2018년	계획	4,620	6,930	-	11,550

자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각 년도.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음.

〈표 2-30〉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예산계획과 결산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비	기타(자부담 등)	합계
2015년	계획	6,778	6,778	-	13,556
	결산	6,778	6,778	-	13,556
2016년	계획	5,992	5,992	-	11,984
	결산	5,992	5,992	-	11,984
2017년	계획	5,646	5,646	-	11,292
	결산	5,640	5,640	-	11,280
2018년	계획	5,039	5,039	-	10,078

자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각 년도.

- 농촌지역에 투입된 예산 비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광역시나 기초시에서 개최되는 지역특화문화행사나 문화관광축제가 적지 않음.

- \* 대구공연예술축제, 부산불꽃축제, 부산 금정산성역사문화축제, 대구 핫페스티벌, 광주 추억의충장축제, 부산 광안리어방축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부산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 항구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시흥 갯골축제,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 이 외에도 지역특화문화행사 중 도 차원에서 개최하는 일부 축제는 개최지의 도시·농촌 구분이 어려움
- \*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강원도), 계룡군문화축제(충청남도),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경상북도) 등
- 전반적인 사업예산(합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2015년 대비 2018년 예산 규모를 보면,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은 47.4%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74.3%로 축소됨.

#### ○ 정책 집행 과정

- 지역특화문화행사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언론보도 및 홍보의 노력은 많았지만, 대부분 개별 축제·행사에 대한 홍보였으며, 해당 정책 또는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특히 정책의 목표나 결과에 대한 공감이나 성과확산 등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
- ‘지자체 단위 정책 수용 여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 및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등의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함.

### 4.2.3.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 목표달성 여부

-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전통문화자원 복원·확산)의 경우 ‘지역별 행사 개최 수’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해 왔음.



〈표 2-31〉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① 지역별 행사 개최 수(회)	1 (정량)	목표	10	12	13	16	행사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실적	13	15	13		
		달성도	130%	125%	100%		
측정산식 (측정방법)	① 행사 개최 현황 조사						
목표치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추이를 고려하여 산출						

- 반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중 ‘문화관광축제 당 평균 관람객 수’는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는 목표를 상회하고 있음.

〈표 2-32〉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5년	'16년	'17년	'18년	
①문화관광축제 당 평균 관람객 수(천명)	0.7 (정량)	목표	705	500	500	-	지자체 결과보고서
		실적	409	360	-	-	
		달성도	58	72	-	-	
②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1.0 (정성)	목표	65.8	66.6	67.8	70.6	문화관광축제 소비자 평가조사보고서
		실적	73.7	74.9	75.4	-	
		달성도	112.0%	112.5%	111.2%	-	
측정산식 (측정방법)	①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방문 관람객 수 산정 ② (100*축제만족도 평균) / 7점 척도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도 목표 및 실적 참고						

#### ○ 정책 파급 효과

- 전통문화자원 복원·확산의 경우 농촌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의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로,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는 조사 문항에 대한 동의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함. 도시주민들의 경우 평균 6.5점인 반면, 농촌주민의 경우 5.1점의 동의정도를 보임.<sup>3</sup>
- 문화관광축제 지원의 경우 <표 5>와 같이 성과지표에 관람객 만족도가 포함되

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동 만족도가 2015년 73.3%, 2016년 74.9%, 2017년 75.4% 등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추진으로 인한 농촌주민 수혜자의 증가나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정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음. 동 정책군의 주요 사업인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농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 즉 농촌에 특화된 정책사업이라 할 수 없으며 대도시나 일반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특히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목표집단이 농촌주민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일반국민과 외래관광객이 수혜자로 제시되고 있음.
-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농촌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련 행사나 축제를 진행하는 참여과정은 부족한 (즉 전문가들의 공급 중심인) 사업도 적지 않음.

### 4.3.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정책 제언

#### 4.3.1.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사업의 다양화

- 전통·향토문화자원의 복원과 농촌주민 참여에 의한 확산 관련 사업 확대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정책사업 중 전통·향토문화 관련 사업을 제4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확대하여 포함
- 전통·향토문화자산은 보존을 전제로 하지만 보존에 머물지 않고 그 기능을 사회적·교육적·경제적 가치 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3 도시주민(동지역) 1,039명 농촌주민(읍·면지역) 1,991명 총 3,030명 응답. 2017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전화인터뷰와 온라인 조사 병행.

- 사회적 가치: 문화유산 향유, 참여 확대, 문화유산 기반 공동체 육성
  - 교육적 가치: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세계화
  - 경제적 가치: 문화유산 산업 다양화, 문화유산 기반 관광 자원화
- 후보 사업으로는 ① 전통·향토문화자산 발굴 및 집대성, ② 전통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확대, ③ 전통문화예술 소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학교 전통문화교육 확대, ④ 민간 활용 한국생활문화 모델 사례 발굴 지원, ⑤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에 전통문화 확대, ⑥ 전통문화 소재 스토리 개발 및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전통·향토문화자산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전통·향토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민으로 양성해야 함.
  - 전통·향토문화자산 교육과 학교 교육과의 강한 연계: 학생에만 한정된 교육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에 대한 지역사 관련 연수프로그램 시행이 필요
  - 지역의 대표적 전통인물 재조명: 해당지역 출신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과 상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고유의 문화이미지 창출
  - 전통·향토문화유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 전통·향토문화자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증대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자산 정보의 전달 체계 및 안내시스템 개선으로 대중화에 기여함. 또한 지역 청소년, 일반인들의 전통·향토문화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는 기회 제공
  - 농촌주민의 전통·향토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인력 육성: 전통·향토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문화기획자나 매개인력(문화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전통·향토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을 확대함. 지역문화기획자나 매개인력(문화코디네이터)는 전통·향토문화향유에 대한 수요조사, 주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 4.3.2. 농촌 특화사업의 확대

- 농촌주민만을 수혜자(지원대상)로 농촌 특화 사업의 4차 삶의 질 향상정책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
  - 농촌축제 지원사업(농식품부):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주민화합, 향토자원 특화, 전통계승 등과 같은 주제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축제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농식품부): 농촌 지역의 면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교육·문화·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5명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
- 지역 특화의 특성이 없는 기존 사업의 농촌형 사업 분리·확대
  - 현재 동 정책군에 포함된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에 따라 농촌 특화형 지역특화문화행사 및 문화관광축제로 선별·분리하여 지원하고 해당 대상을 점차 확대
- 마을별, 또는 읍·면별 전통·향토문화를 활용한 주민 동호회 활동 지원
  - 농촌마을의 전통놀이 발굴 및 주민 동호회 활동으로의 활성화 지원
  - 개별 시·군 단위 공통된 전통·향토문화 기반 활동의 읍·면별 조직화와 활동 및 경연대회 지원(예: 고창농악)

### 4.3.3. 농촌 지역의 전통·향토문화 기반의 생활문화 및 교육활동 증대

- 농촌지역의 또는 농촌형 생활문화센터의 전통·향토문화 기반 생활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총 128개를 선정, 91개는 개관 운영 중이며 37개는 조성 중(2017년 12월 기준)
  - 이 중 농촌지역 생활문화센터 또는 농촌형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통·향토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주민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 추진

- 향후 생활문화조성 역시 농촌지역의 시설은 전통·향토문화활동에 일정정도 특화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고려
  -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생활문화 센터가 획일적 역할보다 문화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민 참여형, 생활밀착형,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영 기준을 농촌주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농촌주민에게는 전통·향토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함.
- 농촌지역 초·중·고 학교 문화 프로그램 중 전통·향토문화 기반의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활동 특화
-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학교의 ‘예술꽃 씨앗학교’에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전통·향토문화 기반 프로그램 확대(농촌형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표 2-33〉 예술꽃 씨앗학교 중 전통문화 분야 교육 진행 학교

시작연도	지역	학교명	교육분야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
'08~'11년	강원	대포초교	국악	- 국악관현악 교육	63명
'09~'12년	전북	간중초교	국악	- 교과 연계 통합 프로그램(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방과 후 국악 관현악, 국악 동아리, 방학 중 국악 실기 캠프 운영	71명
'09~'12년	전북	남원초교	국악	- 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 난타, 민요, 판소리 등 국악교육 - 예술놀이터('동네 한 바퀴', '시장에 가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 하나 되고 지역을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표현	425명
'10~'13년	경남	거류초교	국악	- 국악관현악과 함께 하는 어린이 고성오광대 놀이와 고성농요 프로그램 운영	118명
'10~'13년	전북	당북초교	국악	- '창작 국악극 활동을 통한 전통문화예술과 친구되기'를 통해 창작 국악극 활동 특성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운영	225명
'12~'15년	충북	수안보초교	퓨전 국악	- 물빛소리(우리의 음악과 서양의 음악을 아우름) 교과연계 음악 교육	39명
'12~'15년	제주	애월초교	제주 전통 문화	- 제주해녀 관련 주제학습, 전통예술극, 제주민요, 허벅장단, 승무복 등 제주전통문화와 관련된 통합예술교육 및 동아리, 캠프, 학부모·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124명

(계속)

시작연도	지역	학교명	교육분야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
'13~'16년	충남	서천 중교	전통 문화	- 다양한 예술체험활동 및 판소리 교육을 통한 전통문화 맥 잇기 -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퓨전공연으로 감성지 수 높이기 (대금, 사물놀이, 해금, 아쟁, 통기타, 난타, 밴드, 퓨전댄스, 전통공예 등)	303명
'14~'17년	전북	삼례 초교	전통 문화	- 덩더쿵 우리장단(1학년 전통타악), 흥길동의 후예들(2학년 전 통무술), 상상발달 전통미술 놀이터(3학년 전통미술/놀이), 덩 실덩실 몸짓 놀이터(4학년 전통무용), 올드 케이팝(5학년 소 금), 즐기 Go!, 신나 Go!(6학년 난타)	381명
'14~'18년	충남	수정 초교	국악	- 국악분야 7개 프로그램 편성·운영(가야금, 민요, 판소리, 장 구, 해금, 난타, 춤사위) - 국악공연: 스토리가 있는 수정 각설이	58명
'14~'18년	경북	장천 초교	국악	- 무용농악, 난타, 판소리 교육 - 학부모 / 지역민 가야금 동아리 '도드리' 운영	98명

자료: 예술꽃 씨앗학교 홈페이지 참고(<http://flower.arte.or.kr>),  
검색날짜 2017년 9월 15일.

- 농촌지역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에 특화된 전통·향토문화 기반 문화활동 확대
- 종합하면, 농촌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특성 있는 전통·향토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해당 농촌지역의 문화·여가활동으로 활성화

〈표 2-34〉 전통·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요

정부 지원 수요	비중(%)
전통·농촌문화의 발굴과 원형 복원	10.9
전통·농촌문화를 전승·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	11.9
어릴 때부터 전통·농촌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접할 기회 확대	20.5
전통·농촌문화의 현대화 또는 현대문화와의 융합(퓨전) 활성화	13.6
전통·농촌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호회 활성화 지원	8.2
전통·농촌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장소·시설)과 장비 지원	14.4
전통·농촌문화 지도인력이나 매개인력 지원	5.1
전통·농촌문화와 관련된 공연·전시 등을 주민들이 자주 접하도록 지원	12.6
전통·농촌문화를 배우고 익힌 주민들의 공연(발표) 기회 제공	2.5
기 타	0.2
총 계	100.0

주: 설문조사 응답자마다 두 가지씩 선택.

자료: 김광선·유은영·허주영, 2017,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3.4. 농촌주민의 전통·향토문화 활용 문화·여가활동 실태 및 수요조사 정례화

- 일반시민의 여가, 휴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에 비해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임.
  -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통·향토문화 여가활동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책이 필요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 농촌주민의 전통·향토문화 활용 여가활동을 위한 실태 파악
  - 농촌주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향토문화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위치 파악
-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여가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으므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여가활동 유형, 빈도, 비용, 만족도 등 실태조사와 문화·여가활동 수요조사 실시





## 제 3 장

---

### 문화·여가 부문 우수사례

#### 1. 화순군생활문화센터 동아리 활성화 방안 -화순군생활문화센터 동아리운영 방안 사례를 중심으로-

##### 1.1. 지역 현황 및 실태

- 고령화가 진행중인 지역(전라남도 화순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호회 활력 프로그램
- 동호회 활동현황(총 21개 동호회, 약 300여명) 풍물패/다문화난타/설장구/사물놀이반/한춤/판소리반/민요/서예/한지공예/에어로빅/건강힐링체조/사교댄스/댄스스포츠/오카리나/가요반/연극/화순(정율성)소년합창단/통기타
- 시설 현황
  - 면적: 실내 1,619㎡ 실외 2,332㎡
  - 시설: 북카페/세미나실/공방실/주민공동체공간/학습마당/놀이마당1/놀이마당2 /들국화대공연장(300명)/다목적홀(3개)/녹음실/유아휴게실/자원봉사실/작품보관실/동아리방/사무실(3개) (총 19개 공간)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
  - 1)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 2) 화순지역축제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연간 30회)
  - 3) 지역 협의체 매월2회 회의

## 1.2. 추진 현황

- 문화예술을 매개로 삶터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자존감 향상
  - 주민이 단순한 문화시혜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 동호회 리더 양성
- 농촌지역의 생활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여가와 다양한 형태의 놀이문화에 대한 갈증 증가.
- 한정된 놀이문화 형태와 공간으로 불만족.
- 자생적,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를 한데 규합하여 지역의 단합과 소통과 교류. 농촌지역의 생활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여가와 다양한 형태의 놀이문화에 대한 갈증 증가.
- 한정된 놀이문화 형태와 공간으로 불만족.
- 자생적,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를 한데 규합하여 지역의 단합과 소통과 교류.

〈표 3-1〉 생활문화 그뤼잇! 동호회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청소년	어린이단소	월	18:00~19:00	10
	정율성소년합창단	토	14:00~17:00	30
어 학	한문(초급)	화	10:00~12:00	15
그 림	문인화(산수화)	월	15:00~17:00	15
철 학	풍수지리	수	10:00~12:00	20
춤	다이어트댄스(주)	월·수·금	11:30~12:30	20
	다이어트댄스(야)	월·수·목	19:50~20:50	30
	샤교댄스(브루스/지루박)	화·목	13:30~14:30	30
음 악	오카리나	월	14:00~16:00	10
	우쿨렐레	월	18:00~19:00	10
	통기타(초급)	월	19:00~21:00	25
	Feel통	수	19:00~21:00	*
취 미	생활자수동아리	수	18:00~21:00	*
연 극	레인보우	목	19:00~21:00	*
국 악	아리랑민요반	월	15:00~17:00	*
	사물놀이(장고초급)	금	09:00~11:00	*
	모듬북 난타	월	16:00~17:00	*
	설 장 구	월	13:30~15:00	*
	풍 물 패	화	19:00~21:00	*
	누리민요동아리	수	18:00~20:00	*
	화정(하늘가락+웃샤코이)	수	18:30~20:30	*
목		15:00~18:00	*	

〈그림 3-1〉 동호회 활동 사진

생활문화동호회 연습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 1.3. 사례 동아리 활성화: 정율성 소년합창단 동아리

#### ○ 프로그램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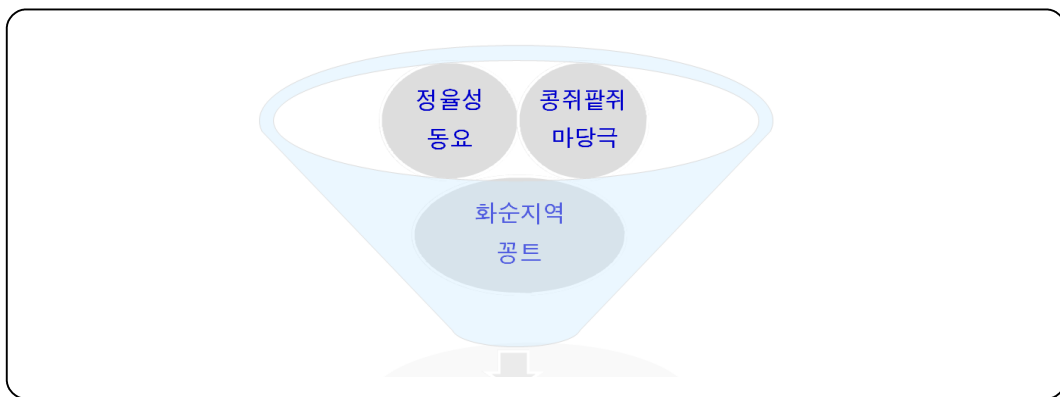
- 대한민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을 창설하여 어린시절을 화순에서 보낸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고, 화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
- 한민족 우수 민족 콘텐츠를 국제문화교류 콘텐츠로 거양함으로써 학습 능력 향상과 창의력·잠재력 개발은 물론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함

- 우리고장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아시아 최고의 현대음악가 정율성선생을 기리고 군민화합과 미래의 좋은 아버지들에게 음악 감상을 심어주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소년합창단(남자어린이합창단)을 창단 육성한 바, 정율성 아이콘이 중국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미래 청소년들의 긍지와 이해를 높이고자 함

#### ○ 프로그램 구성

- 정율성 동요: <우리는 행복해요>, <평화의 비둘기 등>
- 콩쥐팥쥐 📖 별책 증빙자료 참조  
민속노래극 “콩쥐 팥쥐 술래”(박인채 각색, 조승현 연출)  
전통동화 콩쥐 팥쥐 이야기를 강강술래노래로 엮은 마당극  
특별출연-새엄마역(정명자), 중국 유나이티드 소녀합창단
- 화순 지역 문화콘텐츠 포트
- 기타 중국 동요 일부

〈그림 3-2〉 프로그램 구성



#### ○ 프로그램 특성

- 지역성: 정율성
- 고유성: 한민족의 민간 구전 민족문화 콘텐츠(콩쥐팥쥐) 국외 수출
- 독창성: 신 한류의 개척자 소년합창단

## ○ 지역 문화 콘텐츠 가치 확산 효과

- 국내 최초 소년합창단 창단으로 인한 지역 인지도 제고
- 민족문화 우수 콘텐츠(민담설화 기반)의 문화산업 자원화 선도
- 중국 정부의 한국(조선) 우수 민간콘텐츠의 문화산업자원 정책 대응 시급
- 1000년 전라도 정명 기념의 해 전남 화순군과 중국 베이징 문화교류 협력 강화
- 한국 우수 민족문화 콘텐츠를 중국 미래 아동청소년 향해 홍보 보급
- 한류 미래자원 산업화 기반 조기 구축

〈그림 3-3〉 지역 문화 콘텐츠 가치 확산 효과



## ○ 국제교류 및 글로벌 문화네트워크 강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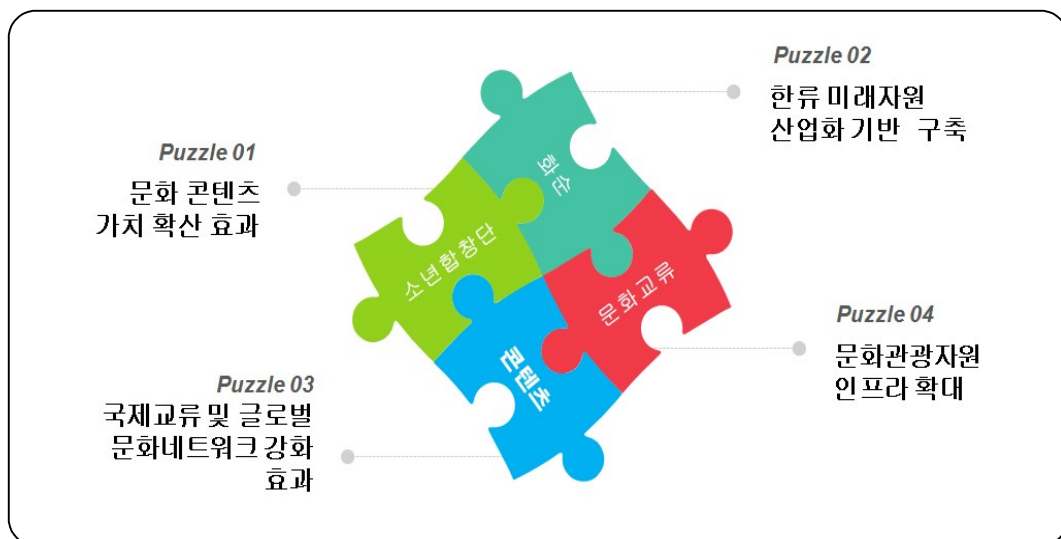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 문화콘텐츠 교류를 통해 기왕의 문화교류의 성과 확장
- 음악을 통해 동시대 아티스트들이 그리는 글로벌 정서를 공유하는 문화 예술을 꿈꾸게 함
- 중국어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 우수문화콘텐츠 공연 플랫폼 MoU 5건 체결
- 2019년도 답방 공연(문화관광 증진) 2건 이상 달성

- 우수 민족문화콘텐츠 현지 언론 보도 20건 이상 보도
- 정율성 유산 답사 및 국내 교류 MoU 2건 이상 체결

○ 향후 사업의 활용도

- 우수한 강사진(현직 지휘자 등) 확보와 차별화된 학습 제공으로
- 지역인재 육성
- 중국어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 우수문화콘텐츠 자원 홍보 보급
- 아동청소년 문화콘텐츠 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 시장 확장
- 정율성 콘텐츠 확장 및 문화콘텐츠 전략 협력 모색
- 화순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확대
- 화순 문화관광벨트 기반 확충 및 중국어권 관광객 방문 촉진
- 지역 문화자원 국제교류 선도 모델 창출
- 사드 여파로 침체된 한류문화 시장 복원을 향한 터닝포인트 수립
- 지적재산 상속권이 중국으로 고착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우수 문화(인) 콘텐츠를 민족문화 콘텐츠로 승화
- 지속적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한류 추출 컨택트 포인트 확대

〈그림 3-4〉 향후 사업의 활용도





## 2.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마을 풍장굿 활성화 사례

### 2.1. 서론

- 농어촌 주민의 여가 활동을 늘리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전승되어오는 전통문화(향토문화)를 복원·전승·확산시키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마을의 풍장굿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산업화 과정을 지나오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던 여느 마을굿과 같은 처지였음.
  - 그러나 어릴적 어르신들이 불렀던 풍장굿의 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낸 향산마을 사람들과, 그 소리를 기록한 언론, 마지막으로 그것을 후대에 이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고창농악보존회 회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거짓말같이 되살아남.
  
- 향산마을의 풍장굿이 복원되는 과정의 처음과 끝을 함께한 경험자로서, 낮에는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짓고, 밤에는 전통문화 파수꾼으로서 살아가는 향산마을 사람들을 존경하는 문화인으로서, 김매기 철에 연행되어 온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향산마을의 풍장굿 활성화 과정을 짚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사라져 가던 농촌마을의 풍장굿이 어떠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복원되었으며, 향산마을의 풍장굿이 지속적으로 연행이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살펴봄.

## 2.2. 향산마을 풍장굿 복원 과정

-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마을은 고창농악전수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고창농악전수관은 2000년 고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舊)학천초등학교를 무상임대 받아 개관
  - 이후 15년간 사용해오다가 2016년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공연장을 신축하며 교육실, 전시실, 공연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재조성되어 교육과 공연, 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 고창농악전수관의 운영주체는 고창군으로부터 위탁을 위임받은 고창농악보존회. 보존회에서는 마을굿을 이어가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향산마을에서 지난 2000년부터 풍장굿과 매굿, 당산굿 등을 함께 연행
  
- 향산마을의 풍장소리는 1991년 전국의 민요를 수집한 MBC(문화방송) 라디오 방송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소개
  - 2001년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창농악보존회는 MBC에 연락하여 마을 어르신들의 육성이 생생하게 녹음된 음성 자료를 제공받음.
  - 음질이 좋아 소리와 가사를 채록·채보하여 두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07년 고창농악보존회 문화재 발표회 때 향산마을 사람들과 함께 ‘향산마을 풍장굿’을 주제로 공연.
  - 1991년 풍장소리 녹음 당시 함께 참여했던 선소리꾼 홍순삼(1931년생) 어르신을 비롯하여 받는소리를 함께 하였던 홍승평, 홍우표, 강대범 어르신 등이 살아계셨기에 가능한 일.
  - 당시 풍장소리 채록 가사는 다음과 같다.

〈표 3-2〉 향산마을 풍장소리(1991, MBC 녹음)

구성	시간	가사
어우름소리	22초	어 - 룰룰룰 룰루루 루 (3회 반복)
진소리	34초	에 헤 - - 이 에 헤 - - - - 잇 이 이 - - - 야 - - - 암 모 호호 - - - 사 에 헤 -
아리씨구나	10분	메기는 소리 1. 둘러서-러-- 둘러러-을 서러-으어헛 어-덕 밀 보-릿대 양-대로 모-셔놓고 어 - 허허 - 허 - - 허 - 한불 통로로 둘러서-라- 2. 노래가-네-- 노래전장-가네-에헤 흥순표 앞-으로 허- 어허어 허-- 노래전장 가-네-- 3. 춘초는 연년룩하고 호 허 허허허 세세연년 풍년이라 4. 서정은 강상월이요 동각엔 설중매라  받는 소리 아리씨구나----앗 어 어허어- 야 아--암 모 호호 ---사 에 헤 -
느린 어화둘레	2분 12초	메기는 소리 1. 어화-- 둘-래 2. 여그도 두르고 저그도 둘러서 3. 두름- 두-름 둘러서 가세 4. 모퉁은 다듬고 풀은- 봄아서 5. 짹짹 묶어서 반지름 허게 6. 저건너 큰 애기 짓가슴 보소 7. 오동 열매와 같-이 생겼네 8. 먼-디 사람은 듣기도 좋고 9. 가즌디 사람은 보기도 좋게 10. 소리도 맞고 김도나 잘 매네 11. 어 화-둘-래 12. 산천-초목은 푸르러 가고 13. 백사지 논배미 푸르러 간다  받는소리 어-화-둘-래

(계속)

구성	시간	가 사
빠른 어화돌래	1분 21초	메기는 소리 1. 어화돌래 2. 여그도 두르고 3. 저그도 둘러서 4. 두름- 두름이 5. 풀뿌리로구나 6. 저건너 갈미봉 7. 비는 몰아오고 8. 서산에 해-는 9. 낙양이로구나  받는소리 어화돌래
마무리	32초	아리씨구나---앗 어 어허어- 야아-- 암 모 호호 ---ㅅ 에 헤 - 어 화 하 후~~~

### 2.3. 풍장굿을 지키려는 향산마을 사람들의 노력

- 향산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풍장굿에 대한 자부심이 강함. 하지만 손으로 모를 심고 김을 매는 노동이 사라지고, 농사문화가 점차 기계화되면서 현장에서의 풍장굿은 마을사람들에게 잊혀진지 오래
  - 농사 현장에서는 사라졌지만, 김을 매면서 부르던 풍장소리와 풍장굿은 생존해 계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그것을 기록하고 계승하려는 마을사람들과 고창농악보존회 등의 노력으로 오늘날 다시 살아남.
  - 향산마을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농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 이 사업으로 농경문화소리전승 및 생활문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는데 마을에서 주력한 것이 풍장굿 복원과 재현

- 이때 필자는 3년 동안 1주일에 한 번씩 마을주민 15명을 대상으로 농악을 지도
  - 교육의 내용은 마을의 당산굿과 매굿, 그리고 풍장소리를 가르치는 일. 주된 교육 대상이 마을의 부녀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열성적인 교육의 참여로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짐. 사람들은 ‘우리 마을은 풍장굿을 친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2015년에는 사업의 결과물로 마을의 논에서 직접 풍장굿 발표회를 함.
  - 마을 사람들은 이 사업을 통해 주민 화합과 소통을 꾀했고, 문화적 자부심을 챙겼음. 이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복지정책의 좋은 사례이기도 함.
  
- 문제는 사업이 끝난 후. 지원이 끊기자 교육의 기회는 사라졌고, 마을사람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 사업 기간에는 사업비로 교육도 받고 악기도 사고 연습 공간도 마련되었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악기를 치고 소리를 하는 기회가 사라져 버림. 악기는 보관함 속에 보관만 되었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악기를 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됨. 이는 3년간 지원되던 사업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지원 없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여겨짐.

#### 2.4. 풍장굿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고창농악보존회의 노력

- 고창농악보존회에서는 고창농악문화재발표회를 통해 향산마을 풍장굿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
  - 2007년에 향산마을의 풍장소리 채보를 하여 보존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풍장굿 발표회를 통해 고창농악보존회 차원에서 향산마을의 풍장굿을 계승·발전시켜 줌.

- 2008년에는 고창농악보존회 브랜드 공연으로 풍무(風舞)를 기획하여 고창과 전주, 수원 등지에서 공연. 풍무는 문굿, 풍장굿, 도둑잡이굿, 판굿을 무대작품화 한 작품. 고창 지역에서 전해져 전승되어오다가 현장에서 단절이 되었던 문굿, 풍장굿, 도둑잡이굿 등을 복원·재현 과정을 거쳐 정리하고 기록한 자료들을 토대로 무대작품을 만듦.
- 이중 풍장굿은 향산마을의 풍장소리와 더불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공연. 마을 사람들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 마을에서 연행되었던 풍장굿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게 생겼고, 고창농악보존회와 함께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 지금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공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마을의 전통문화를 오늘에 되살려내야 한다고 생각

〈그림 3-5〉 향산마을 농악 교육(2014.11)



〈그림 3-6〉 2013년 고창농악보존회의 기획공연 풍무(風舞) 중 풍장굿 장면



## 2.5. 고창농악보존회 사업을 통한 향산마을 풍장굿의 전승

### 2.5.1.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 풍장굿 편

- 고창농악보존회에서는 2018년 8월 문화재청에서 후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 풍장굿 편’을 진행
  -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인문학콘서트에서는 향산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함. 마을 어르신들의 구술을 통해 풍장굿 전 과정을 다시 기록하고, 풍장소리도 함께 부르면서 준비.
  - 200여 명의 관객들에게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향산마을의 풍장굿을 오롯이 전해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실제로 풍장굿을 기억하고 연행할 줄 아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여 더욱 의미 있는 콘서트가 됨.

〈그림 3-7〉 향산마을 풍장굿 발표회(2015.8)



## 2.5.2. 고창농악 톨아보기 - 풍장굿 편

- 2018년 고창농악 기획 전수로 ‘고창농악 톨아보기 - 풍장굿’을 진행
  - 고창농악 톨아보기 전수는 고창에서 전해져 온 농악의 여러 연행 형태 등을 살살이 살펴보면서 배워보는 기획 전수

〈그림 3-8〉 인문학 콘서트 홍보물

고창농악, 사람을 품다



문화재청  
2018 문화민중세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018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풍장굿

일시 **2018.8.23(목)** 오후 8시

장소 **고창농악전수관 대극장**



- 2018년 여름에는 풍장굿을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향산마을 풍장굿을 대상으로 함. 고창농악전수관 옆 마을이기도 하고 전수생들이 직접 마을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
- 2018년 고창농악 토크-풍장굿 전수에는 총 16명이 참가. 고창농악전수를 여러 번 경험한 친구들이었으며 마을굿의 전승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임. 농촌의 두레공동체 조직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직접 대나무를 잘라서 종이를 오려 붙여서 장화도 만들어보고, 향산마을의 풍장소리도 배움.
- 풍장굿 전 과정을 직접 연행해보고, 향산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논에서 풍장굿을 연행하기도 함. 전수생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현장에서 풍장굿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타 지역의 학생들이 향산마을의 풍장굿을 전승해 가는 과정에 함께하며, 다시 한 번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됨.

〈그림 3-9〉 향산마을 어르신들과 고창농악 토크-풍장굿 전수생들(2018.8)



○ 고창농악보존회는 향산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세시절기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정월대보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당산굿과 매굿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행하며, 여름 김매기 시기에 이루어졌던 풍장굿을 함께 하기 위해 전수생들을 교육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

〈그림 3-10〉 풍장굿을 마친 후 향산마을 사람들과 전수생들(2018.8)



- 또한 음력 7월 백중 무렵에 벌이는 잔치에도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하고 있음. 이러한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마을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세시풍속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 2.6.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 농어촌에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 전통문화(향토문화)의 전승은 농촌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면서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
  - 현재까지도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마을의 전통문화를 지켜가고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전통문화를 이어받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하지만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은 있다고 생각. 향산마을의 사례처럼 마을에서 직접 풍장소리를 이어가지 않아도 풍장소리를 같이 할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소리를 지켜내려는 마을사람들과 그것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있다면, 향산마을의 풍장소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세시풍속이 될 것.
  - 마을 사람들은 풍장소리를 이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좋고, 젊은 사람들은 평생 기억에 남는 소리와 풍장곳을 경험하여 마을곳을 전승할 수 있어 좋음.
  - 오늘날 각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세시절기마다 연행되었던 무형의 문화유산은 이렇게라도 이어질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
  - 무형의 문화유산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 농어촌민들의 삶의 질은 문화적 자긍심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선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세시풍속을 그대로 이어가게끔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그러한 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독려해야 함.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함.

## 2.7. 결론

- 지금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향산리 향산마을의 풍장굿 활성화 과정을 살펴봄. 농촌 공동체 사회가 붕괴된 요즘, 한 마을의 전통문화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세심한 노력을 해야만 함.
  - 향산마을은 두레공동체 사회에서 김매기 철에 연행되었던 풍장소리와 풍장굿을 기록하고 복원·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되살아남.
  - 향산마을의 풍장굿은 마을 사람들과 고창농악보존회가 함께 노력하여 마을 현장에서의 굿으로 재탄생 되는 과정을 밟아옴. 이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복원·재현되었고, 오늘날에도 마을현장이나 공연무대에서 새롭게 재현·재해석되고 있음.
  
- 풍장소리와 풍장굿을 몸으로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마을의 굿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고창농악보존회와 마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며 향산마을의 풍장굿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만 함.
  - 세시절기 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만의 세시풍속이 전승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농어촌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됨.
  - 이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 그 마을의 전통문화는 그 마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 정부와 지자체의 끊임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램.

## 제 4 장

### 문화·여가 부문 과제 및 정책 제언

####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1.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정책군

-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이 나아지고 있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지역에서는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표 4-1〉 문화예술행사 향유 걸림돌

		비용 과다 소요	시간 부족	관심유발 프로그램 부재	교통 불편	가까운 곳 시설 부재	편의시설 불편	관람 동반자 부재	기타
대도시	'14	39.5	19.4	11.1	3.7	6.4	0.8	2.0	0.2
	'16	33.9	26.0	15.6	9.5	4.8	5.6	3.0	1.4
읍·면	'14	21.5	17.3	11.3	10.8	18.2	1.0	2.3	0.9
	'16	23.0	26.5	10.3	7.1	14.2	13.3	2.4	2.7

주: 2014년 조사에서는 '관련정보부족' 항목이 포함되었음(대도시: 16.8, 읍·면: 16.7%)  
자료: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인적 기반 확대 중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지도사 파견사업의 경우, 생활 체육지도사를 지역별 수요에 의해 파견했다기 보다는 정책적 공급측면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그침. 향후 지역수요(동아리별) 및 각 지역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지도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2.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정책군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실제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예컨대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농어촌은 문화 향유 기반이 부족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다양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고령자 중심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정보 접근성 등 문화누리카드의 활용방식이 제한적임.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역시, 활성화될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농어업인 등 지역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접근 기회가 향상될 수 있긴 하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나, 예산규모가 매우 적어 사업의 정책적 성과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17년 찾아가는 박물관 5,8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9,000만 원.
  - 또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방식에서 농어촌에 특화된 내용이 없음.

### 1.3.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정책군

- 정책군 목표의 핵심사업과 성과목표로 제시된 사업(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 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 사업, 공간리모델링 사업, 문화참여 핵심인 동호회 관련 사업)이 실제 시행계획에는 미포함
- 정책군의 사업별 성과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향후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예시, 전국 ‘도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 → ‘읍·면 단위’ 생활문화센터 개소 수의 합)를 새롭게 설정
- 제3차 기본계획 종합평가 설문조사에서 문화·여가 부문 중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가 중요한 정책 과제에서 전체 1순위로 꼽혔으나 우수한 정책과제에서는 전체 4위로 나타나, 정책군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수단(사업)의 발굴 필요

### 1.4.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정책군은 그동안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향상하였다는 점을 성과이나,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하여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은 성과. 다만 농어촌에 한정하거나, 특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생활 속 문화참여 확대 정책군의 사업별 성과목표가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양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지표가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정책군에서는 생활 속 생활문화시설의 조성과 프로그램의 제공, 공동체적 활동으로의 유도과 관련하여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지역주민과 문화자원을 연계시키거나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인력(매개 또는 촉진인력, 기획자) 관련 사업, 동호회 관련 사업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은 전통문화자원의 복원·확산을 통하여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실제 시행된 사업은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단(사업) 발굴이 필요
-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도 농촌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임. 농촌주민을 수혜자(지원대상)로 하는 농촌특화사업으로 4차 삶의 질 향상정책의 사업에서 확대 추진 필요



## 2. 정책 제언

### 2.1.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및 인적 기반 확대 정책군

- 꾸준히 농촌의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농촌은 여전히 문화·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부족함. 따라서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문화·여가를 즐길만한 시설이나 장소가 충분하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4점(7점 만점). 보통(4점)에 못 미치는 수치로서 문화·여가 인프라 측면의 불충분함을 나타냄.
-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형성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함.
  - 예컨대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학생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함. 다만 해당 사업의 포커스가 농어촌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지역의 필요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함.
  - 고령화 심화, 문화 향유 기반 열악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진체계와 사업 내용, 성과목표 설정 등이 필요함.
- 관련 사업의 목표(성과지표)가 물적, 양적 지표에 치우쳐 주민의 만족 또는 체감과 같은 질적 목표가 고려되지 못함. 사업 특성에 맞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수립이 필요함.
  - 기존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시설 개소수가 성과지표임.

-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조성 등으로 인한 독서량 증가, 영화관람률, 영화 관람을 통한 만족도, 삶의 질 영향도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 2.2. 문화소외지역 지원 강화 정책군

- 문화소외지역 지원 확대 정책사업별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농 간 문화향유 기회에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도시 81.2%, 읍·면 65.7%(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2016년 관람율은 2014년과 비교할 때, 대도시 5.9%p, 읍·면지역 8%p 상승함.
- 다만, 해당 사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는 담보하기 어려움. 대부분 성과지표가 참여자 수나 이용자 수와 같이 양적 지표임. 더욱이 사업 추진 체계와 내용, 방식에 있어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요컨대 정책 성과목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목표 설정이 필요함.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수(카드 발급매수 집계),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공연 관람객 수,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수
- 농어촌에 특화된 사업 추진 체계 및 내용을 기획한 사업이 필요함. 농어촌 주민을 소외계층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사업 추진 체계나 방식, 내용 등에 있어 농어촌 공간에 대한 특수성 이해는 부족함.
  - 예컨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이 필요함.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서비스가 필요함.
-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지역별 수요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함. 현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시설, 단체 등 공급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짐.

- 인프라, 프로그램, 인적 기반 등 농어촌의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6점(7점 만점)으로 나타남.

### 2.3.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정책군

-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가치를 적용하여 △ 농촌 특수성을 반영한 단계별 문화향유 활성화, △ 농촌 특화형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 창의 교육과 활동 증진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
- 신규 시설을 조성하거나 기존 외관 조성비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존 시설을 활성화는 운영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전환
-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세부과제를 활용하여, 농촌의 특수성(고령사회, 인적자원의 부족)이 반영되면서 농촌주민 수요 및 치유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는 여행지 개발과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행바우처 제공 외에 농촌주민의 여행증진 사업이 부재한 바, 문화·여가의 핵심영역으로서 농촌주민의 여행증진을 포함시키고, 농촌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

## 2.4. 전통·향토문화 전승·활용 정책군

### ○ 사업의 다양화

- 전통·향토문화자원의 복원과 농촌주민 참여에 의한 확산 관련 사업 확대
- 후보 사업으로 ① 전통·향토문화자산 발굴 및 집대성, ② 전통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확대, ③ 전통문화예술 소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학교 전통문화교육 확대, ④ 민간 활용 한국생활문화 모델 사례 발굴 지원, ⑤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에 전통문화 확대, ⑥ 전통문화 소재 스토리 개발 및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 농촌 특화사업의 확대

- 농촌주민만을 수혜자(지원대상)로 농촌 특화 사업의 4차 삶의 질 향상정책의 사업으로 확대 추진
- 지역 특화의 특성이 없는 기존 사업의 농촌형 사업 분리·확대
- 마을별, 또는 읍·면별 전통·향토문화를 활용한 주민 동호회 활동 지원

### ○ 농촌 지역의 전통·향토문화 기반의 생활문화 및 교육활동 증대

- 농촌지역의 또는 농촌형 생활문화센터의 전통·향토문화 기반 생활문화 활성화

### ○ 농촌주민의 전통·향토문화 활용 문화·여가활동 실태 및 수요조사 정례화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 농촌주민의 전통·향토문화 활용 여가활동을 위한 실태 파악

## 2.5. 기타

- 기존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인력 양성과 운영지원에 집중
  - 그동안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기존 시설을 활성화는 운영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업을 변경
  - 문화인력 양성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 맞는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배치
  
- 농촌의 특수성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발굴 및 지원
  - 문화비전2030의 세부과제를 활용하여, 농촌의 특수성(고령사회, 인적자원의 부족)이 반영되면서 농촌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발굴
  - 농촌주민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 문화·여가의 핵심영역으로서 농촌주민의 여행증진을 포함시키고,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



## 참고문헌

---

- 김광선. 2017.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 김덕현. 2002. 경상도 읍치의 역사적 경관 조사 연구.
- 김덕현. 2004. 경상도 읍치경관 연구서설 - 읍치경관 조사 연구를 위한 방법적 탐구 -.
- 김지학 외. 2017.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 공한호. 2017. 대한민국학술원 청사 시설관리용역 계약연장.
- 박창현. 2017.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의 내실화 방안.
- 안승일. 2012. 농산촌 진흥을 위한 GRAT-Tourism 적지선정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박태선·이미영·한우석. 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No.503.
- 박주영·신학승. 2015. 「농어촌 문화향유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로 행복한 대한민국(2017년도 업무계획).